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5



방문규 행장 "반도체산업 발빠른 금융지원" 10

코스피(15일)	3194.33 (+11.95P)	코스닥	1013.90 (-0.52P)
환율(달러당 원화)	1117.60 (+1.0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47% (+0.045%p)

## “금리인상 훨씬 앞서 양적완화 축소” 美 파월 ‘긴축’ 운뒀다

경기회복세에 출구전략 저울질

제롬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을 언급했다. 낙관적인 경기회복 전망에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입장에서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연준이 출구전략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강조하고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준은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쳤다.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리고 매달 120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사들였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긴축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가 최근 들어 잇따랐다. 파월 의장은 11일 CBS의 '60분'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번복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발표한 경기 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미국 경제가 2월 말부터 4월까지 완만하게 가속하고 있다"며 "이는 백신 접종 속도전과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가 살아난 영향"이라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연준은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쳤다.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리고 매달 120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사들였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조기에 긴축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가 최근 들어 잇따랐다. 파월 의장은 11일 CBS의 '60분'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번복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발표한 경기 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미국 경제가 2월 말부터 4월까지 완만하게 가속하고 있다"며 "이는 백신 접종 속도전과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가 살아난 영향"이라며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K산업' 수장 만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문 대통령,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관련기사 6면 뉴시스

## 오늘 丁총리 포함 중폭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개각 대상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됐으며, 청와대 비서진 교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상태이며, 16일 공식 발표 이후 다음 주 대권 도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정 총리는 19~2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직후인 22일경 자리에서 물러난 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

총리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재보선 참패 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교체와 함께 6~7개 부처의 개각이 예상된다. 개각 대상 부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꼽힌다. ▶6면에 계속 정일환 기자 whan@

## LG, 美에 배터리 2공장 설립

GM과 합작 2.6兆 규모로 테네시에 건립, 내년 가동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가시화했다. ▶관련기사 4면

15일 배터리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조만간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3억 달러(약 2조5657억 원) 규모의 배터리 제2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2공장 관련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17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중 2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Ultium Cells)'가 짓는 새 공장은 오하이오주에 설립 중인 제1공장과 달리 비용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배터리 소재를 쓸 전망이다. 규모는 1공장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

다. 공장 가동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들은 GM의 크로스오버 제품인 캐딜락 리릭에 들어간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일찌감치 테네시주 관리들과 제2공장 건립을 논의해 왔다.

이번 두 번째 공장 추진은 GM의 '전기차 회사' 변신 노력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GM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2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2개 이상의 신공장 건설을 포함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배터리 생산에 4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얼티엄 셀즈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오하이오주에 3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에 두 번째 공장까지 더하면 얼티엄셀즈의 총 생산능력은 70GWh까지 늘어난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 쌍용차, 10년 만에 '법정관리'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뤘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계약서서커녕 투자희망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했다.

김중용 기자 deep@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에게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b>기업·개인 통합뱅킹</b>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b>대출·기간연장</b>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b>전문적인 사업정보</b>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b>경영 지원</b> 세무 지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	---	---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BKI(금융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신(당첨번호 2021-11858(2021.03.25) 기사) (일: 2022.03.24) 등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가비 상담원 또는 고객센터(1599-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만원이 있을 경우 가비 상담원, 금융소비자지원센터(030-000-4111) 또는 인터넷 상담센터(www.bk.com)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14일간의 대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 연장이 이에 대해 연세카드도 적용됩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행정심판)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단 한 번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KI(금융위원회)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위한 사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bkb@bkbk.com

**IBK기업은행** 친! 좋은 은행

### 티머니 '전동 킥보드 주차위반 신고 앱' 개발 논란

# “안전 중요” vs “과도한 규제”

〈서울시〉

〈업계〉

티머니가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 검토에 나섰다. 티머니의 1대 주주인 서울시가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티머니는 16일 오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를 대상으로 티머니 본사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차량 신고 서비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 의견 청취 및 진행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를 포함해 10곳 내외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견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해 4만 원의 견인료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량주차 문제가 발생할수록 업체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행은 다음달 본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견

## 서울시 ‘위치정보 자동으로 받기 위해 QR코드 부착’ ‘불법주차 견인비 업체에 전가’ 조례 개정…업체 반발

티머니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앱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민원 신고를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서다.

김솔기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은 “전동킥보드 기기에 QR코드를 붙여 민원인이 일일이 개별 위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위치 정보가 전달되게 개발하려고 한다”며 “위치 정보를 해당 업체, 자치구, 서울시 등에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머니 측은 정책 결정 뒤편은 서울시이며, 현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16일 간담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신고 앱’에 관한 사전 조사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앱 개발 추진 주체는 ‘서울시’라고 부연했다. 티머니의 최대주주는 서울시이며, 2대 주주는 LG CNS다.

서울시가 주차 위반 신고 앱 개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불법

인에 따른 비용을 업체에 물리는 것에 더해 주차 위반 신고 앱까지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는 “현재 자체적으로 기사들을 써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데에 대당 2000원을 주고 있다”며 “4만 원은 오토바이와 동일한 견인료로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처 방식은 규제에 의해 생기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그냥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두드러져 보인다”며 “무단주차에 대한 범칙금은 해외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따름이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경쟁 시장인 전동킥보드 시장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한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따름이는 수익 사업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따름이는 운영비와 구축비 지출로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견인료가 비싸다는 업계의 주장에 “업체들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견인료는 1995년 5월 서울시 조례 조항에 따라 소형·대형차 구분이 없이 만들어진 뒤 별도의 인상이 없었는데 그마저도 비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개인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아니라 업체에 견인료를 물리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경찰청에 과태료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견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다원 기자 leedw@

### 트포 사라지는 골목상권

### 4 아현동 가구거리



한산한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거리.

## 이사·결혼시즌인데 찾는 사람 없어 “대출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텨”

“절간마냥 조용하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대출받고, 또 빌리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5일 아현동 가구 거리는 가벼운 기침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칠 정도로 고요했다. 간간히 보이는 빈 점포 앞에는 낡은 가구들이 처량히 버려져 있었다. 입구 출입문을 활짝 열어둔 상인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쳐 읽고 있거나 들어오라며 손짓한다. 안으로는 직원이 침대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돌

아현동 가구 거리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단지다. 1980년대에 형성돼 현재 100여 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도심에서 다양한 살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신혼부부의 필수 방문 코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매장은 하나 둘 문을 닫았다.

15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김영한씨는 “누가 여기를 거리라고 하겠나, 절간인지 농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도 없고 조용하다”며 “원래도 잘 나가는 시장이 아니었는데 작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졌다”고 푸념했다. 이어 “폐업한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 나는 나이가 있다 보니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장사가 이렇게 안 된 적이 있다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대출받고 못 갚아서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과 이사가 많은 계절 특성상 봄은 가구업계 성수기에 해당한다. 재택근무가 생활화되면서 가구 수요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이는 일부 대형·중견 가구점에만 해당한다. 규모가 작은 영세 점포는 월세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이다. 연령대가 높은 상인들은 온라인이나 비대면과도 거리가 멀다.

상인 박모씨(69)는 “손님은 하루에 3~4명 올까 말까인데 그렇다고 방문한 사람들이 다 구매하는 게 아니잖 않느냐”며 “애초에 발품 팔러 오는 시장인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개를 팔았느냐보다 이달 월세를 내느냐 못 내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아마 이 구역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빛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뿔었다.

글·사진/윤기쁨 기자 modest12@

**편리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정정연료 수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안전 수칙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금지!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지 말 것!

부탄연소기 이단 적재 및 병렬 배치 금지

텐트 내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 금지

가스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택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 회생계획 인가 전 M&A '존속가치 조사'가 분수령

## '법정관리' 예상 시나리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청산보다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쌍용차를 살리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21일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두 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뤘었다. 하지만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로 거론된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들어 회생 절차 개시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회생 절차에 돌입해도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쌍용차에 전달한 바 있다. 일단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정밀 심사할 전망이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

조사위원이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제출하면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한다.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낼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쌍용차가 살아야 할 공익채권이 3700억 원에 달해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분석한다. 하

부채 많아 청산 가능성 있지만 정부 '제2 쌍용차 사태' 부담 커 새 인수자 확보 이후 회생 유력

다수업체, 인수 의향 밝혔지만 HAAH 외 자금력 등 검증 안돼

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감당하기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유상증자 등 투자계획을 반영한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이 공개 매각을 진행하면 HAAH 오토모티브도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엔컴퍼니 등이 인수 의향을 보인 상태다.

다만, 이들의 자금력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인수 계획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제 인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가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인수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HAAH오토모티브가 쌍용차의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 미국의 자동차 유통사인 HAAH오토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주요 일지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2월 6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0년	5월 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8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선정
	11월 23일 쌍용차-마힌드라 본계약 체결
2011년	3월 14일 법원, 쌍용차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2020년	1월 -마힌드라, 2022년 쌍용차 독자 전환 계획 산업은행에 제출. - 2300억 원 규모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산은에 자금 지원 요청
	4월 3일 마힌드라, 쌍용차에 신규 자본 투자 거부
	6월 13일 마힌드라 "쌍용차 지배권 포기하고 새 투자자 모색 중" 발표
	7월 6일 산은, 쌍용차의 7월 만기 대출금 900억 원 만기 연말로 연장
2020년	8월 10일 마힌드라 "새 투자자 나오면 대주주 지위 포기하겠다" 발표
	9월 美 "HAAH오토모티브홀딩스, 쌍용차 투자에 관심 보이며 실사 진행"
	11월 16일 쌍용차, 세 차례 연속감사의견 거절
	12월 15일 쌍용차, 외국계 금융기관에 600억 원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공시
2021년	1월 28일 쌍용차 "HAAH오토모티브와 P플랜 돌입 준비한다" 발표
	3월 10일 인도중앙은행, 마힌드라 지분 75%에서 25%로 낮추는 감사 승인
2021년	- 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한 HAAH오토
	31일 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 제출 시한 만료. - HAAH오토모티브, 투자의향서 미제출
	4월 15일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모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인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700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에 부담이 있고, 쌍용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며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쌍용차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촉발된 이유다.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 등 큰 상처를 남긴 쌍용차 사태는 2018년에야 해고자가 전원 복직되며 봉합됐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지만, 노조가 구조조정에 강

력히 반대하고 있고 사 측도 2009년과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길 원하고 있어 강제적인 정리해고가 단행될 가능성은 작다. 그 대신, 임금 삭감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회생 계획안에 담길 전망이다.

공개 매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투자계획이 담긴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단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다. 채권단이 동의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 구조조정 통한 생산성 제고 산은 등 채권단 지원 이끌어야

### '쌍용차 부활' 키워드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하에서 새 인수자를 찾으려 했던 쌍용자동차가 다시 법원에 생사를 맡기게 됐다. 신규투자자와 산은의 지원으로 부활을 도모하려 했던 쌍용차의 계획도 법원의 시간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이 15일 오전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산은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가 아닌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의 생사가 결정된다.

그간 쌍용차의 자금지원에 '원칙'을 강조하며 거리를 두던 산은은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확정되면서 역할의 무게를 달게 됐다. 다만 법정관리하에서도 주채권단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기에 산은의 입김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으로 제출기한은 6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게 된다. 이 보고서는 쌍용차 회생의 1차 관문이다.

쌍용차의 청산보다는 존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새 투자자를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쌍용차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자금 투입의 대가로 채

권단의 재무조정, 기존 주주 감자,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지구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산은 등 채권단은 조건 없는 자금 지원은 없다고 뜻을 밝은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당장은 채권단을 통해 쌍용차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가 지금까지) 신규 자금을 안 주고도 차를 판 자금으로 굴러갔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굳이 채권단이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당장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원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기업을 돌려야 하는데, 돌려려면 자금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이 조금 빠듯할 수 있는데 채권단이 (쌍용차) 스스로 돌아갈 정도가 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은 등 채권단 지원이 이뤄지면 쌍용차는 미래 생존 가능성과 신규투자자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쌍용차의 기존 계획이 이어지면 법정관리하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생산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회생 계획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객진산 기자 jinsan@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 자본시장의 성장나침반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1955년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자본시장지원 |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투자보호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등에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자본시장인프라 | 증권대차중개 및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서비스  
 우리사주제도 지원 및 개인·법인·기관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국민의 건전한 재산증식을 돕는 생활금융투자플랫폼 「한국포스증권」이 한국증권금융의 가족으로 함께 합니다.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전기차 수요 맞춰라” 美서 몸집 키우는 ‘K배터리’

2025년 美 전기차 점유율 3위 ‘소송 합의’ LG엔솔·SK이노 불확실성 사라지며 공격 투자 삼성SDI 공장 거점 확보 나서

‘K배터리’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맞춰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2020년 30만 5000대에서 2025년 382만 7000대로 12배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나 중국 시장보다 높다. SNE리서치는 같은 기간 유럽은 10배, 중국은 5.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8%로 중국(38.6%), 유럽(32.1%) 다음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미국 투자를 늘리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 소송에서 합의하며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이번에 2조 원의 합의금을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제너럴모터스(GM)와의 두 번째 합작 공장 설립 계획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확보할 배터리 생산능력은 140GWh(기가와트시)에 달한다. 1GWh가 대략 전기차 1만 5000대에 해당하는 공급량이라는 걸 고려하면 전기차 210만여 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는 현재 오하이오주에 35GWh 규모의 1공장을 짓고 있다. 내년 가동이 목표다. 여기에 테네시에 들어설 2공장까지 더하면 총 70GWh의 생산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독자 투자도 병행한다.

현재 5GWh 규모의 미시간 공장에 대해 5조 원을 투자해 7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사내 구성원들에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공장 가상도. 출처 GM SNS

자를 통해 대규모로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에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우선 9.8GWh 규모의 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착공한 11.7GWh 규모의 제2공장까지 더하면 2023년부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생산 규모는 21.5GWh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최근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



미국 조지아주 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1 공장 건설 현장.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배터리셀 공장이 없는 삼성SDI도 조만간 미국 배터리 거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현재 생산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려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북미무역협정(USMCA) 발효가 4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역내 자체 배터리 공장 필요성도 더

욱 높아졌다. 리비안의 전기 픽업트럭 R1T와 전기SUV R1S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출시된다.

삼성SDI는 현재 미시간주에 배터리 조립 공장이 있지만, 배터리셀 공장은 아직 없다. 증권가와 업계에선 삼성SDI의 배터리셀 생산공장 후보지로 미시간주와 선벨트 지역을 꼽는다.

미시간주는 삼성SDI의 배터리 고객사 중 하나인 포드의 자동차 공장 소재지와 배터리 조립 공장 마지막인 팩 단계를 담당하는 삼성SDI 공장이 있다. 기존 공장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선벨트 지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GM, BMW, 벤츠 등 완성차 업체 공장들이 있어 고객사와 밀접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삼성SDI는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기업설명회에서도 유럽 외 미국 등 신규 거점 투자 의향에 대한 질문에 “신규 거점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자산매입 축소 빨라질 듯... 8년 전 ‘긴축발작’ 재현되나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의 점진적 축소)’ 시간표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긴축발작’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훨씬 앞서서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자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013년 시나리오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적완화에 나섰던 연준은 2013년 테이퍼링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5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사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테이퍼 tantrum(긴축발작)’을 일으켰다. 미국 국제 금리가 급등했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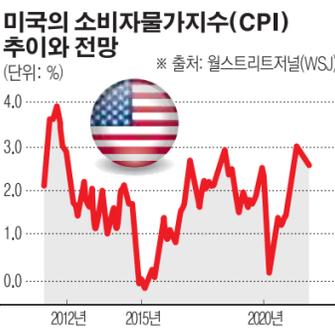
흥국 주가와 통화가치는 곤두박질쳤다.

시장 상황에 놀란 버냉키 의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2013년 12월에야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 후 2년간 금리를 동결했다가 201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8년 전 긴축발작 악몽의 재현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당장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을 두고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훨씬 전이라고 언급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무기가 실린다. 이르면 올해 말에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

### 美 내년 초 테이퍼링 가능성 피치 “신흥시장 위험에 노출”



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변화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75%에 달하면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백신타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약 36%가 1회, 22%는 2회 접종을 마쳤다. 조 바이든 정부는 5월 미국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 7-8월 사실상 집단면역 상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연준이 올해 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초 실시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흥시장이 긴축발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금리 상승은 신흥국의 외화 표시 및 자국 통화 표시 대출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ING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고용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경우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이퍼링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로 이어져 긴축발작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낳는다.

결국 연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구 전략 타이밍을 재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놓이게 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K-POP  
K-FOOD  
K-CULTURE



K-GREEN  
NEW  
DEAL

K팝  
K푸드  
K컬처

## 이제는 K-그린뉴딜!

전세계 음악과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KOREA  
이제 K-그린뉴딜로  
새로운 글로벌 환경과 경제를 선도합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서부발전이 K-그린뉴딜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주)  
KOREA WESTERN POWER CO., LTD.

#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과세 강화” 우려

고시원·비닐하우스까지 포함, 군 지역 제외한 전국 의무화  
일각선 정부가 적정액 고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에 촉각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날날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 도시에서 6월부터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빈틈없이 포함시킨다

는 의지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의 파급도 완성된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신고제 시행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나머지 70%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계약 기간과 신규·갱신계약 여부,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 전월세신고제 시행 개요

시행 시기	2021년 6월 1일
대상 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및 시 지역(군 제외)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을 시 미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처: 국토교통부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임차인은 적정가격에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의 탈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정책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기능도 가능할 전망이다.

◇과세·표준임대료 준비 작업? = 그러나 순기능 이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날날이 공개된 임대차 정보가 향후 과세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신고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하다고 여겨지면 이는 임대사업 포기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

장은 임차시장의 8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그때(6월 이후)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는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전조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위축돼 매출 잠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백신 수급 놓고 정부내 엇박자 “8월부터 위탁생산”... “미계약”

백신 TF 발표에 질병청 해명  
확진자 2~3월보다 배로 늘어  
내주 거리두기 2.5 단계 검토



서울 강남구 등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지역이 확대된 15일 강남구 백신접종센터에서 최연환 할머니가 백신을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틀째 700명 내외를 오가는 상황에, 정부도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8월 위탁생산이 임박했다’는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질병관리청이 ‘계약 전’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98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731명)보다는 줄었으나, 코로나19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던 2~3월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에 가까운 수준이다. 교회, 음식점, 어린이집, 학원, 사적 모임 등 시설 유행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확산세가 가파르다. 수도권에선 연일 400~500명대, 영남권에선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확산세가 주말까지 이어진다면 내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적으로 약 13만6000개소가 집합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116만 개소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하면 (현재 조치가 종료되는) 5월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낮은 수용도다. 권준욱 방대본 2부 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팔레방, 스타디카

페, 셀프사진관 등 무인영업점에 대한 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며 “팔레방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출입 명부도 비치돼 있지 않고, 기침하면서도 마스크를 내린 상황 등이 신고됐다. 셀프스타디카페의 경우에도 좌석 간 거리두기 미흡 사례 등이 신고됐고, 셀프사진관에서도 발열체크 및 출입 명부 기재를 하지 않고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백신 수급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백신 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승인된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의 해명이 이어지고, 질병청은 뒤늦게 “아직 계약 전이라 공식적으로 안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내용은 백신 도입 TF 백브리핑 시까지 질병청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개별 제약사의 협상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협상 상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DB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내일을 향해  
DB가 함께 나아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 K반도체·K배터리 종합전략 상반기 나온다

### 文, 확대장관회의서 “반도체 주도권, 우리가 계속 잡아야” 기업 CEO들에 “투자 늘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도체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회의’를 열어 삼성 등 글로벌 기업에 미국 내 투자와 공장 건립 등을 요청한 것에 영향을 받은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 화상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자국의 반도체 투자를 요청한 지 나흘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이 확대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 5개월만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영향을 받게 될 우리 기업들과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K-반도체 벨트 전략’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

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사장 등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임 가닥

### 오늘 丁총리 포함 중폭개각 ▶1면서 계속

청와대는 16일 정세균 총리의 사퇴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후임 총리 후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인사를 새 총리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 이외에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는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여성인재 중용 차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총리 거취에 따라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유임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홍 부총리는 총리대행을 맡게 된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

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꼽힌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이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교체도 일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진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모진 중 최재성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렬 사회수석을 포함한 일부 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 수석이 교체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민정라인이나 홍보라인의 일부 인사들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마지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오른쪽)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윤호중 “개혁입법 완수” vs 박완주 “민생이 우선” 與 오늘 원내대표 경선 누가 웃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4선·경기 구리) 의원과 박완주(3선·충남 천안) 의원이 마지막 토론회에서 현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현저한 입장 차를 보였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 의원과 비주류인 비문(비문재인)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합동연설회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두 후보는 검찰-언론 개혁, 상임위 배분 등의 현안에 대해 방법론, 속도에서 제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며 격돌했다. 윤 의원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과감함’을, 박 의원은 ‘신중함’을 보였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선 윤 의원은 ‘불가’ 방침을 강조했고,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의 처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민주당의 ‘독식’이라고 비판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소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반성한다

고 해도 그것만으로 국민이 평가하지 않는다. 할 일은 하는 국회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열어뻘었다. 또,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를 각각 달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개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려는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홍영표·송영길·유원식 광주행** 한편 민주당 송영길(5선), 유원식·홍영표(4선) 의원이 차례로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주자들은 15일 광주로 내려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일제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표심에 구애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기후위기’ 정치권 화두로 재부상

지구온난화 앞두고 “대책마련” 목소리  
원희룡, 기후에너지 정책 5개 제시  
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기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4·7 재보궐 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엔 정작 관련 정책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을 초청한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미국무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권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십 수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5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 아닌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2030 세대 정책 결정 참여 보장 등이다. 원 지사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50년에도 온실가스가 2억 톤을 훨씬 웃돌 것으로 봐 매우 부족하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 감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 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첫 사례다. 이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날 저녁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수행 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날 오전 검사를 받았다.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더 많은 이들의 Life is Good!을 위하여

# 도전이 모여 만드는 혁신의 파장

OLED로 초고화질에  
눈건강까지 생각하는  
LG디스플레이 성세종

전기차배터리로  
청정한 미래를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Camille Girard

고객맞춤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LG전자 CX Lab 오민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LG화학 최정운



\* 본 광고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일반 질병·부상에 소득 보전>

# ‘아파도 쉴 권리 없는 나라’ 상병수당 도입 첫발

## 제도기획자문위 첫 회의...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상병수당이 없지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3개월간 ‘해고 없는 무급병가’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렇다고 한국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업무와 관련한 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출산 전후 여성(출산전후휴가)에 대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의 50~70%가 보장된다.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 36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병가 없어 휴업급여·출산휴가 지원되지만 질병 땀 퇴사해 치료해야 평균임금 70%이하 보상...건강보험 활용 재원 마련할 듯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치료를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소득 단절, 중장기적으로는 경력 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보장 수준·기간·재원 =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과 보장 기간, 재원 조달방

안 제도를 도입한 국가마다 다르다. 다수 국가의 방식은 재정지출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최저 보장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은 대부분 ILO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에서 보장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 소요는 보장 기간, 보장 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많게는 1조5387억 원이 든다.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 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으 병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5일 서울 여의도 신월여의지하도로 입구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16일 0시에 개통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양복 4차로, 총 연장 7.53km의 도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섰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 지 5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작년 ‘깔따구 유충 사고’ 8개월 지났지만 또 정수장 5곳서 발견 ‘못민을 수돗물’

### 뒤늦게 재발방지책 마련 나서

지난해 수돗물에서 검출되며 논란이 됐던 깔따구 유충이 올해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447곳 정수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의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수장은 경기 연천군 연천정수장, 동두천 동두천정수장, 충남 보령 성주정수장, 충북 제천 고암정수장, 강원 화천군 산양정수장이다.

연천·동두천정수장에서는 원수에 유충이 유입된 것을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했고, 성주정수장은 방출망 손상과 정수지 내부 정수 상태 불량 등이 확인됐다. 고암·산양정수장 역시 시설 노후화,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유입된 유충을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곳 외에도 18곳의 정수장에서는 정수는 아니지만 원수 및 여과지 내벽, 역세척수 등 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결국, 해당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깔따구 유충은 지난해 7월 인천 공촌정

수장과 가정집 수돗물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유충이 나왔고, 국민의 공분을 사며 수백건의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수돗물 정화를 위한 활성탄지 시설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다. 2019년 붉은 수돗물에 이어 깔따구 유충 사태도 장기화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더욱 회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유충이 검출된 5곳 정수장에 정수처리 강화, 차단망 설치 등 조치를 취해 유충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고, 해당 지역에서 유충 발견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 18곳에 대해서는 유충 차단 조치를 하고 처리공정별로 거름망을 설치해 점검 중이다. 재발방지책도 뒤늦게 내놨다. 유충이 검출됐거나 취약한 정수장 55곳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118곳에 대해서는 2271억 원을 들여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3% 중반 올라설 것”

### 코로나 확산 대처·백신 보급 관건 韓銀, 원화기조 전환 일러 금리동결

세계 경기의 빠른 회복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21년 1·4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기조(통화완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며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경연은 수출(재화+서비스) 증가세



확대가 올해 국내 성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4%의 역(逆)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적극적인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며 성장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상승 등 교역 여건이 개선되고, 바이오·헬스 같은 비주력 품목의 수출도 크게 늘면서 수출 증가율은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또한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

체 등 IT(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면서 설비투자는 5.0% 수준이 될 것으로 한경연 측은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개시에도 코로나 19 재확산과 장기간 진행된 가계 소득기반 약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2.2%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에서 올해 1.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 무보, 한국판 뉴딜·소부장 기업 수출역량 강화

### 산은과 정책금융 협력체계 구축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무보와 산은은 15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국판 뉴딜 및 소부장 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교환해 금융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험·보증과 대출을 통한 종합적인 금융패키지를 제공한다. 보험·보증료와 금리 등 금융 조건을 우대하여 제공하는 적극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그린·디지털과 소



이인호(오른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산업은 세계 각국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기업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진해운 파산 이전>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6년 前 수준 회복”

### 정부, HMM 1만3000TEU급 컨선 상반기 12척 발주 지원

정부가 올해 해운 매출액 40조 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목표로 해운산업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국적선사인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내외 발주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의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해 선사들의 선박 도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통해 신용대출, 계약입찰·이행 등으로 보증을 확대한다. 올해 6819억 원 규모로 중소선사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월가 은행 ‘어닝 서프라이즈’ 축포

### 경기회복·개미군단·스팩열풍 타고 JP모건·골드만 순이익 4배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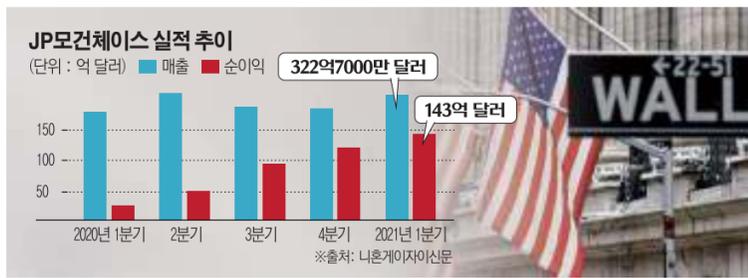
월가 주요 은행들이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어닝서프라이즈 축포를 쏘아 올렸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이날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22억7000만 달러(약 36조 원), 순이익은 약 400% 폭증한 14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EPS)은 4.50달러로, 팩트셋 집계 애널리스트 전망치(3.10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부실 채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지만, 경기 회복 덕분에 실제로 충당금이 손실로 계상되지 않고 환입된 영향이 컸다. JP모건의 환입금은 지난해 4분기 29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52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기업·투자은행(IB) 부문 순이익도 5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어닝서프라이즈에 도움을 줬다.

제니퍼 펍색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는 시작과 함께 강력한 경



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여전히 리스크도 있지만, 하반기도 회복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의 가계지원과 향후 인프라 투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등으로 미국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호실적을 거뒀다. 회사의 1분기 매출은 177억 달러로 103.4% 증가했고, 순이익은 68억4000만 달러로 466% 급증했다. EPS는 18.60달러로 레피티니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 10.22달러를 압도했다.

연초 게임스톱과 AMC 등 이른바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매수

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열풍, 그에 따른 인수·합병(M&A) 열기 등은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부문의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주식과 통화·상품 거래는 각각 68%, 31%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트레이딩 매출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76억 달러로 집계됐다. 자문 매출도 1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인더라이팅(유가증권인수) 순이익의 증가는 공격적인 기업공개(IPO) 덕분”이라며 “금융 자본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M&A 거래 완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과 IPO 시장에 진입한 수많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불을 일으켜 월가의 기록적인 분기 수익을 만들어 냈다”며 “파티는 당장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바이든 ‘반중몰이’에 눈치 보는 스가 美·日 정상회담 오늘 개최

일본이 미국의 거센 ‘반중국 몰이’에 고심에 빠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 주인공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거센 공격에 일본이 눈치 보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꼬집었다.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현재 바이든 정권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혐의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제재를 가했다. 일본과 인도, 호주 등 쿼드(QUAD) 협의체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분쟁 중인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의 이 같은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상황이다. 특히 희토류 등 전략물자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맞선다는 경제 분야 의제는 미·일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7년부터 3년간 일본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일본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이유로 중국이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대립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위구르와 관련한 설전을 주고받았지만, 이후 “우리의 통화는 적어도 알래스카 상황과는 달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알래스카에서 강도 높은 회담을 가진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 정치가와 기업들까지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결전에 자국이 참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와세다대의 아오야마 루미 교수는 “일본은 중국에 대한 안보 불신이 경제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의 이 같은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상황이다. 특히 희토류 등 전략물자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맞선다는 경제 분야 의제는 미·일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7년부터 3년간 일본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일본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이유로 중국이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스가 총리의 고위 보좌관들은 회담에 앞서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과 중국 텐센트 간의 관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텐센트가 라쿠텐 기술에 접근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달 초 텐센트 자회사가 라쿠텐 지분 3.65%를 매입해 6대 주주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라쿠텐은 이동통신 사업에까지 뛰어들면서 일본 5세대(5G) 산업의 주요 주자로 부상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통신과 반도체, 희토류 등 주요 공급망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일본 정부는 라쿠텐에서 비롯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일본 與 간사장 “올림픽 취소할 수도”

일본 집권 자민당 실세인 나카이 도시히로(작은 사진) 간사장이 15일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나카이 간사장은 “코로나19가 더 확산해 올림픽 개최가 무리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상은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도쿄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두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에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 형상 조명이 비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실세인 나카이 도시히로(작은 사진) 간사장이 15일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나카이 간사장은 “코로나19가 더 확산해 올림픽 개최가 무리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상은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도쿄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두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에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 형상 조명이 비치고 있다.

##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첫날 ‘31%’ 폭등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화려하게 나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인 250달러보다 31.3% 폭등한 것이다. 준거가격은 직상장으로 공모가가 없다 보니 기존 장외시장 거래와 투자은행들의 자금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수치다. 코인베이스는 381달러에 시초가를 형성, 장 초반 429.5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310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내 320달러 선을 회복했다.

2019년 3200만 명이었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4300만 명, 올해는 5600만 명에 달한다.

증가 기준 시가총액은 858억 달러(약 96조 원)에 달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치솟으며 시총 역시 1120억 달러를 찍기도 했다. 2018년 자금 유치 당시 책정됐던 기업 가치(80억 달러)를 감안하면 3년 만에 회사 가치가 10배 넘게 뛴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인베이스 시총이 홍콩거래소(HKEX)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보유한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런던증권거래소(LSE), 나스닥거래소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능가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기와 함께 코인베이스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1년간 각각 800%, 1300% 뛰었다. 코인베이스가 지난주 발표한 1분기 예비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한 18억 달러, 순이익은 작년의 3200만 달러에서 7억3000만~8억 달러로 폭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 매출은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12억8000만 달러)을 가볍게 넘어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로 손꼽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中서 ‘미운털’ ... ‘폴 죽은’ 마윈

### 석 달 만에 공식석상 등장, 말없이 고개만 끄덕

### 푸틴 주재 러시아 화상회의 참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마윈 설립자가 석 달 만에 다시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마윈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러시아지리학회(RGO) 감사위원회 화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약 28억 달러(약 3조 원)의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하고 나서 등장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마윈은 침묵을 지키면서 고개만 가끔 끄덕거렸다.

마윈은 더는 알리바바 경영을 맡지 않지만, 여전히 대주주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1월 20일 중국 농촌 교사들을 위한 자선행사에 화상으로 연설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고위인사들을 앞에 놓고 정부의 금융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가 당국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가장 거침없는 억만장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마윈은 자신이 설립한 경영대학원이나 태극권 스튜디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고향인 저장성에서 열린 기업가 연례 회의에서의 연설도 보류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인터넷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러시아지리학회(RGO)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왼쪽 아래)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러시아 대통령령 홈페이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마윈은 종교처럼 열광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리면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구축했다”며 “오직 하나의 권력 중심만 허용하는 중국에서 너무 강력해졌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자본가에 대한 공산당의 경계 속에서 마윈을 분쇄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농협銀, 런던사무소 개설 한창 홍콩·호주 등 5곳도 지점 준비

**글로벌 거점 마련 박차**  
‘제로금리 시대’ 성장 위해 해외로  
기존 뉴욕 지점엔 IB 데스크 준비

NH농협은행이 해외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 투자금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거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해외 거점에 대한 내부 감사도 꾸준히 실시하며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은행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15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영국 런던 사무소 개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런던 사무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사회에서 사무소 개설 계획을 보고하며 “글로벌 IB네트워크 구축과 선진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안정적 외화조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런던사무소 설립을 위해 올해 실무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연내 사무소 설립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런던 외에도 현재 중국 북경, 홍콩, 인도 노이다, 베트남 호치민, 호주 시드니 등 5개 거점에 지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투자금융 허브를 육성하

**농협은행, 해외 지점 설립 추진 현황**



기 위한 홍콩 지점은 연내 최종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시드니지점의 경우에도 3월 말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명칭 사용 허가를 획득했고 연내 지점 최종인가 획득 및 영업개시를 할 계획이다.

북경지점은 이달 초 중국 금융업 인가당국인 ‘중국은보감독회’로부터 설립 예비인가를 획득했으며, 연말까지 지점 설립의 최종 단계인 본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노이다지점은 연내 예비인가 획득을, 호치민지점은 연내 CL(접수확인증) 수령이 목표다. 또, 기존 뉴욕지점에는 최근 IB 데스크를 설치하며 투자금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농협은행은 해외지점의 확대와 더불어 내

부 감사 강도를 높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관련 과태료 제재를 받은 뉴욕지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내부 감사를 4차까지 진행했으며, 매 이사회마다 해당 감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또, 올해도 감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까지 마쳤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국내 사업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급증하는 가계 대출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대출만으로 은행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순이자마진 축소, 한계 기업증가는 농협은행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최근 영업보고서를 통해 “제로금리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자이익에 치우쳐 있는 수익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글로벌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올해 해외 사업 확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권 행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IB사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역시 능동적인 해외 사업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2025년 해외 사업에서 당기순이익 1600억 원, 해외점포 13개국 28개 확보라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하나카드와 임직원 함께 성장” 권길주 사장, 콜센터서 첫 일정

**취임식 대신 현장 직원과 소통**  
“모든 업무 의사결정 고객 중심  
데이터 및 지급결제 사업 집중”



노력으로 작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으나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등과 같은 올해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부 역량은 물론 회사 성장의 근간이 되는 손님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데이터 및 지급결제 관련 사업에 대한 전략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길주(사진) 하나카드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행보로 직원과의 소통을 나섰다.

15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권 신임 사장은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권 사장은 형식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경영 극대화 및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취임 후 바로 손님케어센터(콜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손님케어센터를 방문한 권 사장은 “하나카드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고의 가치는 손님으로 최첨단에 있는 손님케어센터 직원들이 내 가족과 같이 성심을 다해 응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며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사장은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면하고 “신임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 고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직원과 하나카드가 함께 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사장은 취임식을 갈음한 대직원 인사말에서도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하나카드는 그동안 직원들의

김유진 기자 eugene@



방문규(왼쪽) 수출입은행장이 14일 경기도 이천시 반도체 소재기업 디에스테크노를 방문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오른쪽은 정연운 디에스테크노 본부장.

## 방문규 수은행장 “반도체 산업에 발빠른 금융지원”

**부품사 ‘디에스테크노’ 방문**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방문규수출입은행장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발빠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방 행장이 14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반도체 특수소재 부품 생산 전문기업 디에스테크노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에스테크노는 첨단 반도체 소자(CHIP)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 제조기업이다. 특수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쿼츠(Quartz), 실리콘(Si)을 전문적으로 가공·취급하는 중소 기업이다.

이 기업은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제조된 고강도·고순도 소재인 CVD-SiC를 가공해 식각장비 내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링 등을 생산한다.

안학준 디에스테크노 대표는 이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라, 소모성 부품의 교체주기 연장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강도·고순도 소재인 CVD-SiC 제품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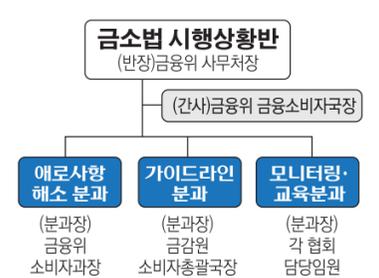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하기 위해선 수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 시설투자자금,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제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수은은 1월 SK하이닉스, 산업은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소부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당국, 금소법 애로사항 5일 내 회신

**“법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  
금융계와 소통 창구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파악하고 적시 지원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소통채널을 강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시행상황반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해 주기적으로(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 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투자자 성장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이 대상이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이달 말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 BIG STEP FOR TOMORROW ]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적층세라믹커패시터〉

# 몸값 높아진 MLCC... 삼성전기 '1兆 클럽' 복귀 청신호

올해부터 모바일 수요 회복세  
1분기 영업익 추정치 '3066억'

0402크기 초소형 제품 개발 성공  
MLCC 수익성 개선 '가속페달'

올해 부족 올랐던 MLCC(적층세라믹 커패시터) 몸값에 힘입어 삼성전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좋은 업황에 더해 회사도 초소형, 고부가 MLCC 제품 개발에 힘쓰며 수익성 높이에 한창이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다시 '영업익 1조 클럽'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삼성전기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조3400억 원, 3066억 원을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5.29%, 86.25%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0402크기(가로0.4mm, 세로0.2mm)에서 최대 용량과 최대 전압을 구현하는 MLCC를 개발했다.

이 같은 호실적 전망은 MLCC 사업 호황에 기인한다. 특히 IT용 MLCC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 반등을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진했던 모바일 수요가 올해 회복기를 맞았다. 수요를 공급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며 세계 1위 MLCC 업

체인 무라타를 비롯해 일부 업체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조기 출시한 갤럭시 S21 시리즈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중국 OVX(오포·비보·샤오미)가 화웨이 점유율을 빼앗기 위한 경쟁을 지속하며 부품 재고 수준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조사가 내놓는 신제품이 5

G 스마트폰이라는 점도 MLCC 제조사엔 호재다. 5G 스마트폰은 4G 제품과 비교하면 MLCC를 20~30%가량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MLCC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삼성전기는 0402 크기(가로 0.4mm·세로 0.2mm)에 최고 성능을 지닌 초소형·고용량 MLCC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초소형에 1.0uF(마이크로패럿)가량의 고용량 특성을 유지하면서, 정격전압을 기존 4V(볼트)에서 1.5배 증가한 6.3V까지 높여 고성능 IT 기기에 최적화한 점이 특징이다.

5G 등 기술고도화, 멀티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 탑재로 인해 초소형 크기에 큰 용량과 큰 전압을 견디는 MLCC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장용 MLCC 비중도 차차 높아지는 중이다. 전체 MLCC 매출에서 전장용 제품이 차지

하는 비중이 5% 수준이었지만, 올해엔 비율이 두 자릿수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기가 전장용 수요 대응을 위해 지은 중국 텐진 MLCC 신공장도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MLCC 사업이 중심인 컴포넌트솔루션 사업부 이외의 사업부에서도 전반적인 수익성 제고 작업이 한창이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솔루션 사업부는 한계 사업부에 대한 축소 및 정리와 반도체 기관의 구조적 업황 호조가 맞물리며 이익기여도가 올해 12.8%, 내년에는 15.8%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신규 주문에 대해선 가격도 인상될 만큼 수급도 뻣뻣하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복귀도 예상한다. MLCC 호황기였던 2018년 삼성전기는 영업이익 1조18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2019년과 지난해 7340억 원, 8291억 원으로 1조 원을 밑돌았다. 노وری 기자 we1228@

## SK, 전기차 공략 가속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 인수 유럽 완성차 업체 '폴스타' 투자

SK㈜가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는 15일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인 한국 시그넷 EV를 인수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싹튼 강자로 평가받는 폴스타에도 투자한다.

이 회사는 첨단소재, 그린(Green), 바이오(Bio), 디지털(Digital)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동박,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전기차 시장의 핵심 소재와 기술 관련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

SK㈜는 이번 시그넷 EV 인수와 폴스타 투자로 전기차 소재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글로벌 완성차 기업 투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SK㈜는 시그넷 EV 지분 55.5%를 2100억 원 가량의 신주를 포함해 2930억 원에 인수한다. 2016년에 설립된 시그넷 EV는 350kW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해 2018년 세계 최초로 미국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SK㈜는 시그넷 EV 인수로 고품질 충전기 제조 역량을 확보한 이후 그룹 내 역량을 통해 선제적인 연구·개발 투자, 제품 경쟁력 강화, 해외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폴스타에는 지리자동차그룹과 최근 조성한 '뉴모빌리티펀드'를 활용해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폴스타는 볼보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하이퍼포먼스 전기차 제조사다.

폴스타는 이번 투자자 모집으로 총 5억 5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지난해 순수 전기차 '폴스타2'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출시된 이후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목표치를 웃돈 약 2만 대가 팔렸다.

SK㈜ 관계자는 "SK㈜는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Watson)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사 에스퍼워테크닉스 등 친환경 미래차 시장 핵심 소재·기술부터 그룹(Grab), 투로(Turo) 등 혁신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시그넷 EV 인수와 폴스타 투자 등을 통해 SK㈜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 '풀HD 영화' 1초 만에 저장 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신제품 양산

읽기·쓰기 속도 최대 88% 향상  
성능 개선에도 전력 사용 동일  
애프터서비스 3년 → 5년 확대



이번에 양산을 시작하는 SK하이닉스 기업용 SSD 'PE8110 E1.S'.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인 'PE8110 E1.S'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 말 제품에 대한 내부 인증을 완료했고 5월 중 주요 고객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19년 6월 세계 최초로 128단 4D 낸드 개발을 성공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128단 낸드 기반의 기업용 SSD 제품 세 가지(SATA SE5110, PCIe Gen3 PE8111 E1.L, PE8110 M.2)를 개발해 양산해 왔다. 이어 이번 PE8110 E1.S

의 양산을 통해 회사는 이 분야 제품군의 '완전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완전한 라인업이란 128단 4D 낸드 기반의 기업용 SSD 제품 중 SATA 및 PCIe(E1.L, M.2, E1.S)의 폼팩터(제품의 외형)를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

PE8110 E1.S는 이전 세대 96단 낸드 기반 제품인 PE6110 대비 읽기 속도는 최대 88%, 쓰기 속도는 최대 83% 향상됐다. 이는 4GB(기가바이트) 용량의 풀 HD급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저장하는 수준이다. 또, 최대 용량 제품인 PE8110 8TB(테라바이트)의 경우 2000편의 영화를 하나의 SSD에 담을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처럼 제품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도 전력 사용량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용량, 그리고 저전력 경쟁력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체해도 서버가 즉시 인식할 수 있고, 애프터서비스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SK하이닉스는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기업용 SSD 시장은 지난해부터 연평균 21.5% 성장해 2024년에는 2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한국지엠도 반도체 수급난 '부평 1·2공장' 섯다운

19~23일 생산라인 가동 중단

한국지엠(GM)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19~23일 부평공장 전체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다.

1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19일부터 5일간 부평 1공장과 2공장 운영을 멈춘다. 한국지엠은 이미 2월부터 부평 2공장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 운영해왔는데,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장기화하며 전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 아이오닉5, 19일부터 본격 계약 스타트

현대차는 19일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본격 계약을 받고 21일부터 지자체별 보조금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PE 모듈 공급 차질로 생산이 일부 중단되며 아이오닉5의 출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보조금 소진 우려가 커지

부평공장 생산 중단은 미국 GM 본사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부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해 GM이 각 국가와 공장별로 배정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차종에 부품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에 따라 한국지엠이 물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여파는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소형 SUV '코나'를 양산 중인 울산1공장

의 가동을 중단했다. 브랜드 대표세단인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충남 아산공장도 12~13일 이틀간 생산라인을 세웠다. 울산1공장은 카메라센서, 아산공장은 PCU(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이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기아도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조립 공장의 생산을 이틀간 멈췄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도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평택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부터다.

롯데인지의 국고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인지 익스클루시브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8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서울) 400만 원을 제외하고 378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이 최대인 울릉군(1100만 원)에서는 308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 LG전자-네덜란드 큐앤코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맞손'

LG전자가 미래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15일 네덜란드 양자컴퓨팅 개발업체인 큐앤코(Qu&Co)와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Multiphysics simulation)을 위한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협약을 맺었다.

다중 물리는 전기, 자기, 열, 유체 등과 관련한 물리적 현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현상과 시스템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3년간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연구 성과는 산업계의 다중 물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양자컴퓨터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을 각각 표현하는 비트(bit) 단위로 계산하지만, 양자컴퓨터는 양자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인 중첩현상을 활용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qubit·Quantum bit) 단위로 연산한다. 노وری 기자 we1228@

## LG전자, 美 세탁기 공장 증설

LG전자가 미국 내 가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세탁기 공장 증설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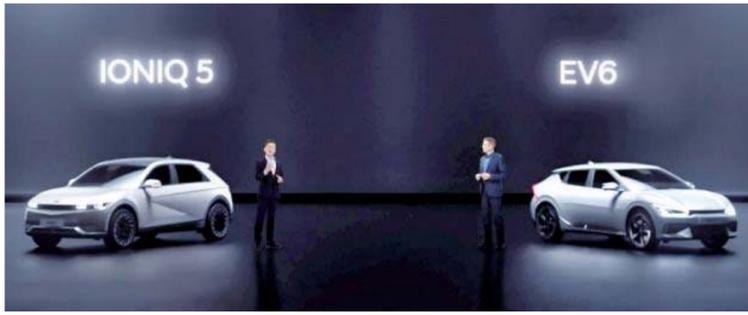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州) 클락스빌에 있는 세탁기 공장에 2050만 달러(약 229억 원)를 투자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증설을 통해 334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탁기 공장 직원 수는 1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전자 테네시 세탁기공장은 2017년 8월 설립을 시작해 2018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세탁기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하고, 미국 가전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테네시 공장은 대지면적 125만㎡에 연면적 7만7000㎡ 규모로, 연간 120만 대의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를 생산할 수 있다. 전체 투자 금액은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 원)였다. 송영록 기자 syr@

# 현대차·기아, 中 재공략 나선다 “2030년까지 전기차 21종 출시”

**라이징 어게인, 포 차이나' 개최**  
내년부터 아이오닉5·EV6 판매  
그룹 첫 해외 수소연료 법인 건설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제2 도약



중국 전략 발표회 '라이징 어게인, 포 차이나(Rising again, For China)'에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왼쪽)와 기아 EV6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국 시장 전략 발표회 '라이징 어게인, 포 차이나(Rising again, For China)'를 개최했다. 양사는 내년부터 아이오닉5와 EV6를 현지에서 출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개최된 행사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을 하기 위한 4대 전략 △현지화 연구·개발(R&D) 강화 △전동화 상품 라인업 확대 △수소연료전지 기술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 △브랜드 이미지 쇄신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광국 현대차·기아 중국 사업총괄 사장은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한 곳”이라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점하고 재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하반기 중국 상하이에 선행 디지털 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현지 개발 기술력을 강화한다. 상하이 디지털 연구소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전동화 △공유 모빌리티 등의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세계 최대의 친환경차 시장이기도 한 중국 시장에서 양사는 전동화 제품군을 확장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양사는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델 아이오닉5와 EV6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수소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해 2030년까지 양사를 통틀어 총 21개의 전동화 제품군을 구축해 현지 시장의 전동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올해 초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대차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판매 법인인 'HTWO 광저우'를 건설 중이다. 약 20만7000㎡(6만3000평) 규모를 갖춘 'HTWO 광저우'는 2022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 전기차 '넥쏘'를 중국에 출시해 현대차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현지 수소 기술 표준 제정에도 참여해 중국 시장의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베이징현대차는 지난해 선보인 중국 전용 기술 브랜드 '에이치 스마트 플러스(H SMART+)'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동풍열달기아는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 재출

시 활동을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고객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변화하는 중국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상품 제품군을 최적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현재 21개 인 내연기관 모델을 2025년까지 14개로 줄이고 효율적인 상품 운용에 나선다.

유창욱 기자 woogi@

## 삼성, 지능형 차량용 LED 모듈 출시

주행 맞춤 헤드램프 정밀 제어



삼성전자가 첨단 LED 광원 기술을 집약한 차량용 LED 모듈 PixCell LED(사진)를 15일 출시했다. 회사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PixCell LED는 보다 정교한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을 구현한다. 전방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주행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헤드램프를 제어할 수 있다.

100여 개의 세그먼트(Segment·1개의 LED 칩에서 개별적으로 구동되는 발광 소자 최소 단위)로 구성된 삼성전자 PixCell LED는 각 세그먼트에 격벽 구조를 적용해 세그먼트 사이의 빛 간섭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LED와 대비해 3배 향상된 300:1 명암비를 구현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100개 이상의 세그먼트를 하나의 LED 칩으로 집적해, 발광면적을 일반 지능형 헤드램프용 LED 모듈 대비 약 1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헤드램프에 필요한 밝기를 확보했다. 광학시스템과 방열 구조 등을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어 헤드램프의 크기를 30~50%까지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 PixCell LED를 기반으로 설계된 헤드램프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가별 다양한 도로 법규에 맞게 광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헤드램프 제작사가 개발,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게 돕는다. 송영록 기자 syr@

레시피 알려주고 유통기한 관리

## 똑똑한 'AI 주방가전' 뜬다

삼성 '비스포크 직화오븐 AI' 출시  
LG '얼음정수기 냉장고' 선보여



삼성전자 모델이 개인 맞춤형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스포크 직화오븐 AI'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주방가전 제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인 맞춤형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스포크 직화오븐 AI'를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직화오븐 AI는 차별화된 조리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기반 개인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고 감각적인 비스포크 색상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사용습관에 따라 모드 순서와 온도가 자동 조정되며, 새롭게 적용된 '대화형 알림창'을 통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23가지 요리의 조리 과정을 쉽게 안내해준다. 또한, 자주 하는 요리의 조리법을 '나만의 레시피'로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빅스비 음성명령이나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온도·시간·메뉴 등을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냉장고 도어 전면 디스플레이와 LG 씽큐 앱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디오스 스마트 얼음정수

기 냉장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냉장실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 3대를 활용해 보관 중인 식품을 인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LG 씽큐 앱과 연동돼 보관 중인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방법을 추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씽큐 푸드 메뉴의 스마트 식품관을 이용하면 식품 구매 또한 편리하다.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디오스 광파오븐'도 대표적 집콕 가전으로 인정받으며 꾸준한 인기다. 이 제품은 AI 쿡 기능을 도입해 LG 씽큐 앱의 카메라로 CJ, 풀무원, 동원의 간편식 63종에 있는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광파오븐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권태성 기자 tskwon@



## Time is our tradition

1924년 탄생한 정통 스위스 독립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GROVANA)는 스위스 테니켄(Tenniken)의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lleville 3hands  
STEEL CASE  
1765.1594  
41.5 mm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 “농어촌 3년 내 5G 터진다” 이통 3사 망 구축 협력

인구·데이터 트래픽 등 따져 131개 시·군에 설치  
기지국 공동이용·이통사 간 핫라인 통해 품질관리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공동으로 이용해 2024년 상반기까지 농어촌의 5G 구축을 완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15일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장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이통 3사는 전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G 공동이용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해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MVNO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통 3사 농어촌 지역 5G 구축 계획**

<b>SK</b>	<b>SKT</b>
경기 일부, 경남 일부, 세종시, 인천광역시, 충남, 충북 일부	
<b>KT</b>	<b>KT</b>
강원 일부, 경기 일부, 경남 일부, 경북 일부, 충북 일부	
<b>LGU+</b>	<b>LGU+</b>
강원 일부, 전남, 전북, 제주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별로 SKT는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 KT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LGU+는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읍·면이다.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술 방식은 기지국만 공동이용하는 방안, 코어망까지 공동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lt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으로 했다.

망 설계 과정에서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이통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 3사가 85개 시·행·정·도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해 20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증감률 (단위: %)

※ 출처: 한국은행, 2020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구분	2019년		2020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체	-3.8	-2.4	-1.9	-12.7	-1.6
기계·전기전자	-8.7	-2.9	1.8	-1.0	9.0
식품료·담배	1.8	5.0	4.9	1.7	6.3
운송장비	7.5	3.0	-3.5	-17.3	2.7
목재·종이	-3.7	0.5	3.0	-3.2	-4.1
비금속광물	-7.7	-6.1	-2.2	-12.1	-4.1
섬유·의복	1.9	-1.4	-8.3	-15.9	-5.4
금속제품	-1.5	-3.2	-5.0	-15.2	-6.8
석유·화학	-6.5	-7.0	-5.2	-26.8	-17.8



##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대기업 납품가 동결” ‘성장 엔진’ 중소 제조업체의 눈물

업종별 양극화... 특단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 줄었고 원자재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발주 기준이 아닌 출고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납품단가는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선박 밸브 제조 A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간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협력이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경제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력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다며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양극화 현상을 짚었다. 실제 기계·전기전자(9.0%), 식품료·담배(6.3%), 운송장비(2.7%) 등 업종은 매출이 늘어난 반면, 석유·화학(-17.8%), 금속제품(-6.8%), 섬유·의복(-5.4%) 등은 감소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중소기업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5.4%에서 2020년 14.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이에 노 단장은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힘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 인력,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에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 이해관계자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봤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성화 △국내외 개방형 혁신 촉진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 △김한수 경기대 교수 △안준모 고려대 교수 △이승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다”며 “중소제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KT 노사 ‘ESG 경영’ 손잡았다

탄소중립·랜선야학 가속도  
“환경·사회문제 해결 일조”

KT가 ‘노사공동 ESG 경영’을 선언하고, 10대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서 구현모 대표,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부장, 신현욱 경영지원부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자리한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KT 노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강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KT는 ESG 10대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환경 영역(E)에서는 탄소중립 실행을 본격화한다. 먼저 RE 100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6개 국사에 태양광 시설을 넣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RE)로 대체하는 자립국사(사용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국사)로 구축한다. RE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세계적 캠페인을 뜻한다. KT는 2008년 화성성신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전국 81개 국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KT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건물의 실내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공공성을 가진 10개 빌딩에 무료로 제공한다. AI 빌딩오퍼레이터는 연간 약 10%의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현모(왼쪽) KT 대표와 최장복 KT 노조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노사공동 ‘ESG’ 경영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뒤 열린 퍼포먼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영역(S)에서는 KT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즉 ABC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목소리 찾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의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야학’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지배구조(G)영역에서는 전 그룹사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해 준법 리스크 제로화에 도전한다. KT는 사외이사 비중을 73%(전체 이사 11명 중 8명)로 확대하고 이사회 소위원회 의장을 분리 운영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KT는 ESG 핵심과제 실천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 ‘지.우.개(지구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는 KT 친

환경 캠페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메일 지우개, 일회용품 지우개 테마로 진행된다. 먼저 ‘이메일 지우개’는 임직원 대상 매주 금요일, 불필요한 이메일과 지운 편지함을 비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지우개’ 캠페인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스타트업 ‘트래쉬 버스터즈’와 손잡고 진행한다. KT 이스터빌딩과 웨스트빌딩 전층에 배치된 전용수거함에 다회용컵을 넣으면 트래쉬 버스터즈가 컵을 수거하고 세척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가장 질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으로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ESG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김범수 카카오 의장, 5000억 규모 지분 블록딜

### “사회 환원” 상반기 재단 설립 자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 5000억 원 가량을 시간외대량 매매(블록딜)로 매각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블록딜 방식으로 카카오 지분 매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5대 1 액면분할을 완료하고 거래를 재개했다. 첫 거래일에는 12만 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이날 한때 13만 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주식 약 5000억 원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에 촉여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율은 중가 12만500원 대비 3.3%~5% 낮은 주당

11만4500원~11만6500원 선이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이 재산을 기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더기빙플래지’에 서약하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공식 약속했다. 블록딜을 통해 사회공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서약도 진행했고 기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상반기 재단 설립 등을 위해 블록딜을 통해서 자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1년 4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10,000,000원 중 금6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 주식 보통주식 22,000주 중 12,000주를 1주당 금5,000원 소각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주 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6.

주식회사 골드마인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 (대방동)  
대표이사 김상우



# 원조 뛰어넘은 1위들

후발에도 연구개발로 시장 장악  
농심, 신라면 인기로 삼양 제철  
삼다수·젝시믹스 업계 강자로

‘농심, 쿠팡, 삼다수, 젝시믹스...’  
전혀 다른 업종인 이들 기업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원조를 뛰어넘은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소비재의 경우 ‘원조’ 또는 ‘최초’가 갖는 의미는 크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동시에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원조기업이다. 그만큼 후발주자가 원조기업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지만 이를 현실화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발빠른 트렌드 따라잡기와 연구개발에 힘입어 후발주자임에도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뉴욕 증시에 입성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석권했지만 원조는 아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역사는 이베이코리아의 ‘옥션(AUCTION)’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경매라는 콘셉트를 처음으로 시장에 도입한 옥션은 개인 대 개인(C2C)이 물품을 사고파는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해 오픈마켓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옥션은 영업을 이끈 또한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이커머스 업체 간 과열 경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불과 최근 2~3년 사이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구도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면서 옥션은 업계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쿠팡은 설립 10여 년만에 쿠팡점프를 기록하며 거래액 20조원을 돌파했다. 옥션이 중개수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 흑자 모델을 추구했다면,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직접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를 단행했다. 적자 누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적자는 곧 쿠팡의 경쟁력으로 바뀌었다. 이커머스가 가격 경쟁에서 빠른 배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 것도 쿠팡의 로켓배송이 한몫했다.

부동의 라면 1위 기업인 농심도 원조는 아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 일본 명성식품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이 원조다. 라면 시장을 개척한 삼양식품은 한 때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며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농심은 안성탕면과 신라면을 출시하면서

1985년부터 삼양식품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농심은 K라면 열풍을 타고 처음으로 매출 2조원 고지를 밟았다. 코로나 19로 집콕족이 늘어난데다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가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모으며 역대 최고 매출 달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만 200개 이상이다.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조하고 광동제약이 유통하는 ‘제주삼다수’다. 1998년 3월 출시된 삼다수는 제주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면서 23년째 줄곧 생수 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삼다수보다 훨씬 앞서 탄생한 브랜드가 있다. 1982년 하이트진로음료가 선보인 ‘석수’가 국내 1호 먹는 샘물 브랜드다.

제주삼다수는 가정배송 전용 어플 개발과 가정 배송 서비스가 결합된 삼다수 앱을 공개해 구독경제 트렌드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삼다수 앱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우유 시장 1위는 서울우유다. 그러나 서울우유보다 앞서 유업계에 진출한 기업이 바로 매일유업이다. 매일유업은 고 김복용 명예회장이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매일유업의 전신)를 인수해 창업한 회사다. 우유의 원조 매일유업은 2017년 단 한 차례 서울우유의 매출을 뛰어넘었을 뿐 줄곧 유업계 1위를 굳혀온 것은 서울우유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만든 서울우유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액 1조 7548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늘어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최근에 등장한 원조를 뛰어넘은 브랜드로는 젝시믹스가 꼽힌다.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수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애슬레저 시장은 코로나19 집콕 시대를 맞아 지난해 젝시믹스가 1000억 브랜드에 등극하면서 시장 최강자에 올랐다.

이 시장의 원조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몰리웨어’가 꼽힌다. 젝시믹스는 몰리웨어보다 4년 늦게 출범했지만 사내 R&D 센터를 통해 한국인의 체형 연구에 기반한 제품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젝시믹스는 올해도 매출 2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롯데백, 캠핑 용품·바비큐 할인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캠핑 용품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캠핑 열풍이 시작된 지난해 봄(3~5월) 캠핑과 트레킹 용품을 취급하는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39% 늘었다. 올 들어서도 (3/1~4/14) 매출이 55% 늘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캠핑 시즌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캠핑 페어’를 진행한다. 컬럼비아와 콜핑 의류를 최대 80%, 캠핑 용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18일까지는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

드 본매장에서 구매시 금액대별 10%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관악점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블랙야크 패밀리대전을 진행해 아웃도어 의류 및 트레킹화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본점 메종카키브에서는 18일까지 타이거, 폭스클, 마이베비 등 텀블러를 10~50% 할인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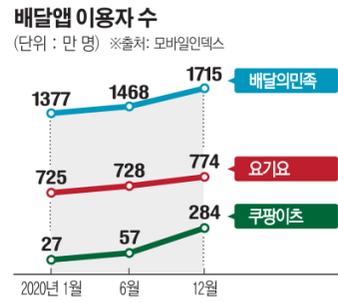
캠핑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행사도 준비했다. 16일 단 하루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등 수도권 16개 점포에서 한우, 돼지, 수입육 전품목을 당일 판매가에 50% 할인 판매한다.

한편, 롯데온도 18일까지 ‘캠핑, 불멍은 못 참지’를 테마로 다양한 캠핑 용품과 캠핑용 먹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한 번에 한 집만’ 쿠팡發 음식배달 속도 전쟁

쿠팡이츠 ‘단건 배달’ 인기에  
위메프오, 시스템 구축 나서  
배민도 6월 서비스 도입 예정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고 배달 플랫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쿠팡이츠를 독립법인으로 출범해 사업을 전문화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오도 쿠팡이츠의 핵심 전략인 ‘단건 배달’에 나서며 맞불을 놓고 있다.

쿠팡은 고객, 상점주, 배달 파트너 지원 및 배달 파트너 운영을 위한 서비스 팀을 관리하는 ‘쿠팡이츠서비스’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쿠팡이츠 서비스에 나선지 2년 만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쿠팡의 신규 자회사로, 쿠팡이 100% 지분을 소유할 예정이다.

쿠팡이츠는 한 건의 주문을 한 집에 배달하는 ‘단건 배달’ 방식으로 고객과 음식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힘입어 출범 2년 만에 배달 업계 3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배민 이용자는 1715만 명, 요기요는 774만 명이며, 쿠팡이츠는 284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1

급성장하자 경쟁자들도 빠르게 맞불을 놓고 있다.

위메프오는 배달 라이더들이 한 번에 한 집에 배달을 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위메프오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 LK ICT와 업무 협약(MOU)을 맺고 음식 주문과 배달 라이더를 1대 1로 매칭하는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내 ‘단건 배달’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배달 대행사를 활용한 1대 1 배달 △개인 배달 라이더와 1대 1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단건 배달’ 모델을 공개한다. 위메프오에 입점한 외식업 점주들은 △직접 배달 △대행사 활용 묶음 배달 △위메프오 단건 배달 중점포 상황에 맞는 배달 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고객과 사장님의 편의성, 만족도를 모두 높이기 위해 단건 배달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장님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도 최근 가맹점주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배민1(one)’ 안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배달기사에게 한 번에 하나의 음식만 배달하게 한다는 ‘단건 배달’이며 6월에 도입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월 27만 명에서 1년새 10배 넘게 사용자가 급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고객·상점주·배달 파트너의 문의사항에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을 통해 쿠팡이츠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배달 파트너들은 유연하게 근무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환 대표는 “쿠팡은 ‘고객이 와우(Wow)하게 만들자’(Wow the Customer)’는 문화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쿠팡이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며 “쿠팡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뛰어난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점주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배달 파트너에게는 안전한 배달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 전략을 통해



## 내 손으로 만드는 ‘신세계 본점’

신세계가 대한민국 최초 백화점인 ‘신세계 본점’의 블록 굿즈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1200여 조각으로 패키징된 이번 굿즈는 16일부터 신세계백화점에서 5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 당일 10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무료 증정한다. 또 19일부터는 SSG닷컴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향후 향초, 디퓨저 등 다양한 굿즈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해외 유명 백화점 못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 백화점’을 알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신세계

# CJ오쇼핑, 모바일 PB상품 전방위 확대

주얼리·디퓨저·장난감 등  
취향 맞춤형 틈새시장 공략

CJ오쇼핑이 모바일 PB(자체브랜드)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CJ오쇼핑은 최저가와 물량, 배송속도 경쟁에 매몰돼 있는 유통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취향 맞춤형 니치마켓을 공략하며 모바일 시장 차별화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아트웍스코리아와 다다엠앤씨 등 별도 판매채널을 갖춘 자회사들도 고객 분석과 상품 소싱 역량을 기반으로 자체 PB 역량을 강화하며 모바일 경쟁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CJ오쇼핑의 PB 사업은 대량 판매를 전제로 하는 TV홈쇼핑의 패션PB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CJ오쇼핑 전체 취급 중 PB상품 비중은 18.2%로, 전년비 2.8%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TV에서 모바일로 PB 사업의 시야를 돌린 건 지난 1월부터다. 전담 조직을 신설

해 세포마켓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소량상품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모바일 채널에서 브랜드 기반을 마련한 뒤, TV홈쇼핑이나 오픈마켓 같은 다른 채널로도 확장해 외연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기획된 모바일 PB의 올해 1분기 취급고는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연간 취급고 목표도 전년 대비 2.5배로 잡고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 PB는 ‘향(香)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테일라센츠’와 주얼리 브랜드 ‘뮤즈벨라’,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아이디어집’ 등이다.

지난해 CJ오쇼핑의 간판 프로그램인 ‘동가게’에도 소개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테일라센츠는 올해 ‘향’ 전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포지셔닝을 강화했다.

뮤즈벨라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한정판 에디션 제품만 선보이는 브랜드다. 뮤즈(셀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뮤즈벨라를 ‘패스트패션 주얼리 브랜드’로 포지셔

닝해 라인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리빙브랜드 ‘아이디어집’은 최근 일러스 트레이터 ‘오리여인’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선보이며 인기를 모았다. 올해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인 ‘픽더셀’을 활용해 신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CJ오쇼핑의 자회사인 ㈜아트웍스코리아와 미디어커머스 전문 기업 ㈜다다엠앤씨도 모바일 PB 경쟁력을 토대로 각각 재무상태 개선과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재미 큐레이션 쇼핑몰 ‘편샵’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웍스코리아는 2017년 CJ오쇼핑에 인수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3040 납성을 주타깃으로 한 ‘편샵’은 장난감, 전자제품, 취미용품 등 아이디어 상품을 제안하는 독보적인 컨셉의 커머스 플랫폼이다.

올해 3월 첫 선을 보인 하이브리드 캠핑 브랜드 ‘브루클린웍스(BROOKLYN WORKS)’는 아웃도어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주요제품이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포스트 코로나 생존법 '분할·합병'

기업 가치 제고·경쟁력 확보 목적 '선진형 기업 전략' 확산  
LG, 지분 일부 넘겨 LX홀딩스 신설... 두산, 물적분할 추진

코로나 시대, 회사를 합치고 쪼개는 것으로 활로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목적은 각기 다르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쪼개기도 불이기도 한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계열사끼리 합치는 사례도 많다.

어쨌든 회사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주 가치 제고'다. 기업 분할이나 합병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 분할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주요 상장사는 LG, SK텔레콤, 두산, STX중공업, 하이브(구 박히트) 등이다.

한때 주력사업이었어도 미래 수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면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중점 사업에 역량을 쏟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특히 압도적 시장지배력으로 승승장구하던 대기업은 수시로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선진형 기업전략'이 확산되는 추세다.

SKT는 지난 14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

주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그룹에는 이미 지주사가 있지만,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 ADT캡스, 십입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반도체 및 뉴 ICT 자산을 보유한 새로운 중간지주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LG도 이와 유사한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다. LG는 일부 계열사 지분을 넘긴 LX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했다. LX그룹에는 LG상사,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가 편입된다.

LG는 이번 인적분할에 대해 "양 지주회사는 독립 및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 사업관리 영역 전문화,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물적분할에 나선다. 지게차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산업차량BG부문을 신설 회사로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경영위험의 분산과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분할 완료 후, 분할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

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전부를 두산밥캣 주식회사에 매도할 예정이다.

하이브(구 박히트)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아티스트 발굴, 육성 및 음악 제작을 담당하는 레이블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 회사인 박히트뮤직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STX중공업도 수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떼 STX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를 만든다.

이들이 공통으로 분할 이유로 꼽은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전문성 확대 △주주가치 제고 등이다.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업분할은 합병을 동반하거나 새로운 사업구조를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하이브는 분할 발표 후 일각에서 엔터 사업 별도 매각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타카홀딩스 인수를 함께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두산과 STX중공업도 분할 발표 후 주가가 올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전엔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분할과 합병이 많았지만 요즘은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성장 전략으로 삼는 기업이 많다"고 진단했다. SK그룹의 사업 재편 작업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박기영 기자 pgy@

## '초개인화' 고객 자산관리의 핵심

증권사 '마이데이터'에 촉각  
개인정보 맞춤형 상품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맞춰진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증권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업 진출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초개인화 자산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기 위해 관택과 업무협약을 전날 맺었다. 이달 초 한국투자증권도 고객 맞춤형 WM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기업 '나이스(NICE) 지니데이터'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번에 교보증권과 업무협약을 맺은 관택은 2016년 설립된 '초개인화 금융투자 플랫폼' 지향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이다. WM 솔루션 'Q-Engine'과 위험관리 모델 'Q-X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업무협약을 맺은 NICE지니데이터는 NICE그룹의 주요 계열사다.

초개인화란 개인의 상황, 필요에 따라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 자산관리를 더해 고객 상황에 따라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현재 증권사 중 마이데이터사업 분허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자산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KB증권은 관택과 오픈 AP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머니포트'를 출시했다. 이어 DB금융투자도 관택과 주식형 WRAP 출시, 하나은행은 사전증여신탁 등 로보어드바이저 기술력 기반 다양한 서비스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 하나금융투자도 AI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AID(에이드)'를 출시했다. AI기술을 활용해 개인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초개인화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이용자들의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필터 버블이란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해 이들 개개인을 특정 기업의 테두리에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인아 기자 ljh@

## 카카오, '무게' 덜고 몸값 올렸다

액면분할 후 첫 거래일 7.6% ↑  
증권사 '13만 이상' 목표가 제시

카카오가 주식 액면분할 후 첫 거래일인 15일 7.59% 오른 12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에 대해 '13만 6000원까지 간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12만500원에 출발한 주가는 한때 주가는 13만2500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대금은 2조 원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53조3479억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51조3289억원)를 제치고 코스피 5위에 올라섰다.

통상 시장에서 액면분할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 요소로 본다. 수십만원대 주식이 수만원대가 되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거래량이 늘기 때문이다. 주식을 쪼갬다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지만, 투자자의 거래 자체가 쉬워져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예정된 호재가 많



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등 계열사의 상장이 예정돼 있고,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최근 카카오 보고서를 발간한 6개 증권사(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KTB투자증권)가 제시한 목표가의 평균은 약 13만6000원 수준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이 1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개 증권사 모두 13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 카

카오모빌리티의 구조적인 손익분기점(BEP) 돌파 기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IPO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시장 기대감 △카카오커머스, 카카오모빌리티, 픽코마 IPO 기대감 △두나무 미국시장 IPO 추진 등을 호재로 꼽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카카오가 5조 5098억 원, 영업이익 455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ROE는 2.7%에서 7.9%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지 기자 eom@

## 더본코리아 IPO 준비? 구조조정 속도

해외 매출 감소세에 법인 6곳 청산  
새 브랜드 론칭하며 국내시장 집중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해외법인을 청산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더본코리아가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회사에 출자하는 등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자 기업공개(IPO)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더본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연결)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1507억2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107억8749만 원에서 82억6062만 원으로 23.4% 줄었다.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77억1078만 원을 기록하면서 1% 감소세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외 법인들이 실적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국내 매출은 1220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해외 매출은 170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일부 중국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았다. 회사는 청도더본찬음관리유한공사 등 중국법인 6곳을 청산 및 매각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종속사는 전년 17곳에서 13곳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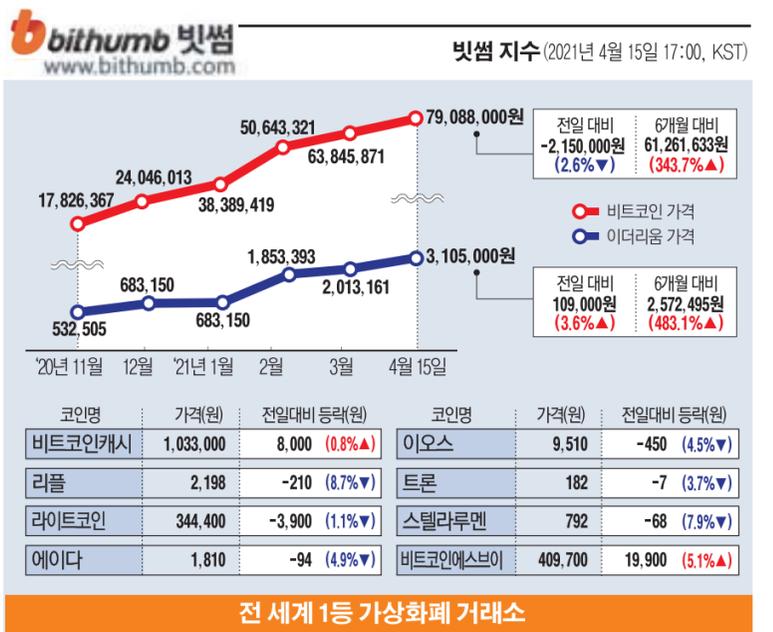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내 직영매장의 영업중단이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중국 내 해외법인 일부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코로나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져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늘어난 더본코리아의 매장 수만 250개가 넘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매장 수는 1770여 개로 파악된다. 영업약조권 속에서도 작년 더본코리아는 캐주얼 맥거리바 브랜드인 '막이오름' 가맹사업에도 나섰다.

아울러 가맹점포를 위한 외식 디지털 사이니지(전자표지판) 시스템 개발 회사에도 신규 출자(지분율 70%)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사업 재편 행보에 IPO 기대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19년부터 회계 처리 기준을 국제회계처리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면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 공공개발은 강북만? 강남 '민간 주도' 기대감에 외면

2차 도심개발 후보지 강북 집중  
강남, 가구 수보다 고품질 위해  
정부 "강남도 검토 중"이라지만  
전문가 "고밀 개발할 곳 없어"

공공 정비사업이 서울 강남에서 외면받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가운데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공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동의와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강남 일대 민간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 정부가 강남 민심을 돌리길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국토부와 정비업체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에 강남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차 후보지 13곳 모두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집중됐다. 강남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선정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보지에도 예외지역

구분	현행	민간재개발	3080+사업 (역세권 제외 시) 279%	기존사업 대비
용적률	142%	269%	380%	111%p 상향
※가구 수	582	854	1195	39.9% 증가
우선분양액/시세	-	75.10%	63.9%	11.2%p 감소
※수익률	-	60.90%	90.5%	29.6%p 증가

※ 가구 수: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가구 수 증가분의 최대 절반 임대주택 기부채납  
※ 수익률: 정부 추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 수익률  
※ 출처: 국토교통부

으로 남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곳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인 송파구 거여 새마을 재개발 구역 한 곳 뿐이다. 강남의 공공 정비사업 외면은 오 시장 취임 이후 높아진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우

려가 뒤섞인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용적률 규제를 민간 사업대비 최대 111%포인트 이상 높여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가구 수가 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공공 정비사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강남지역은 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가구를 공급받기보다는 적은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민간 재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주택을 얻길 원한다. 또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 등 토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예상 사업성 분석 결과 면적 2만7000㎡ 규모 기준 공급 가구 수는 민간(573가구)이 공공(842가구)보다 적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으로 늘어난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총 215가구로 민간(90가구)보다 더 많았다. 강남구 일원동 인근 S공인중개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 가운데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공공 정비사업을 원할지 몰라도, 60-70평짜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을 포기하고 공공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남에서 공공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강남지역에서도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를 접수하고 사업성 분

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에서) 먼저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를 우선 진행해 발표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남권에서도 검토가 끝나면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지역 공공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당장 강남 지역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할 곳이 남아있지 않다"며 "강남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수익 보장이 우선이므로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정비사업은 중산층 이하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중·소형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큰 줄기"라며 "강남지역에서 공공이 앞장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강남은 민간으로 하고, 이외 지역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종부세 과세 앞두고 손떼는 '주택협동조합'

시민들 간 자조로 주거난을 덜어보겠다는 주택협동조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세금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함께하는 집 트락(트락)'은 주택협동조합 주택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주거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비영리 주거 공동체다. 트락을 만든 목동 주민들도 2016년 조합을 꾸려 십시일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동체 주택으로 꾸렸다. 주거 불안을 덜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범적인 공동체로 소개도 됐던 트락 조합은 올해 조합 해산을 결정했다. 집은 민간에 분양하기로 했다. 올 6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서다.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트락 조합은 종부세로 3000여

만 원을 내야 할 판이다.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에 올해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7·10 대책 여파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트락 관계자는 "법에 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사업 과정 내내 손실을 받는데 정부가 투기라고 하니 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에 사업이 좌초된 주택협동조합은 트락만이 아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택협동조합 희망동작도 올 초 청년주택을 사무실로 바꿨다. 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해 주택을 구매했던 건설사가 종부세 부담에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선부른 제도 때문에 엉뚱하게 청년주택만 없어졌다"고 한숨지었다. 일부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 개인 이름으로 주택 명의를 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이 경우에도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7·10 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는 땀질을 이어갔다. 7·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종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종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

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배경에서다. 바뀐 세제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킬 위험성도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운영 중인 한 사회적 기업은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단지를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매년 최고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건설임대사업자로 일반 세율을 적용 받았던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기노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이 존속할 수 없는 모델이 됐다"며 "재정 건전성을 갖춘 비영리성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반환 보증 보증을 감면·면제 해 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집문서 생긴 '헬리오시티' 8개월새 매물 7배 쏙

조합원 내분으로 2년 지연 돼  
소유권 이전 작업 마무리 단계  
리스크 해소... 집값 상승 전망

입주 2년 만에 '집문서'가 생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사진)' 아파트(옛 가락시영아파트)에서 매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매매 매물은 13일 현재 562건이다. 연초(299건)보다 매물이 88% 급증했다. 매물 가뭄에 시달리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매물이 7배 넘게 늘었다. 헬리오시티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9510가구)지만 그간 거래량에선 '땡칫값'을 못했다. 2019년 입주 후 올 초까지 아파트 소유권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에서 각 가구로 넘어오지 않았던 탓이다. 조합 내분과 조합원 추가 부담금 문제가 겹치면서 소유권 이전 작업은 2년 동안 지연됐다.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



할 수 있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그간 헬리오시티 거래가 뜸했던 이유다. 지난해 말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문제가 타결되면서 활로가 트였다. 송파구가 올 초 헬리오시티 소유권 이전고시를 내면서 지금은 동(棟)별로 소유권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달 중 모든 동에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물이 늘면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지만 헬리오시티는 소유권 리스크 해소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13억 원대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형은 지난달 처음으로 실거래가 15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이맘때 16억 원에 매매되던 전용 84㎡형도 20억 원까지 값이 올랐다. 지금은 23억 원까지 호가한다. 다만 세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소유자는 그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특히 헬리오시티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을 받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6월부터 올라간다. 전세를 위한 급매물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반적으로 등기가 마무리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커지고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5월까지 일시적으로 값을 낮춘 급매물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주목! 이곳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이달 분양 'GTX-C·7호선 연장' 교통 여건 우수

우미건설-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아파트를 이달 말 분양한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는 27일 특별공급 신청을, 28일과 29일 각각 1·2순위 청약이 열린다. 당첨 발표는 다음 달 6일, 정당계약은 6월 16-25일이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엔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로 24개 동이 들어선다. 총 2049가구로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74㎡ A형 356가구 △74㎡ B형 559가구 △74㎡ C형 95가구 △84㎡ A형 664가구 △84㎡ B형 375가구기 공급된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에는 양주 원도심인 덕정지구와 신도심인 옥정·회천지구 사이에 있다. 양쪽 개발 호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양주시 덕정역과 경기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난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도 옥정지구

까지 연장된다.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서 교육 여건도 좋다.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운송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시스템도 설치된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독서실, 카페 등이 들어선다.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에 있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단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오세훈표 ‘자가진단 키트’에 구청 난색

### “잘못되면 책임은 전부 우리 몫” 전문가들도 찬반 갈려 혼란 가중 서울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촉구하자 서울 자치구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가진단 키트 민감도가 유전자 증폭 검사(PCR) 보다 떨어지는 데다 한 건이라도 오류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자치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가진단 키트 도입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편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도입 시 혼란이 생긴다는 위험도 있다.

자가검사 키트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무증상 확진자를 먼저 찾아내면 업종별·업체별 거리두기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PCR 검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의 주장에 자치구 사이에서는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 구청이 감염 취약 시설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수습해야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오류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책임을 모두 자치구가 떠안아야 해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자를 걸러낸다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자 1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것이냐”며 “자가진단 키트 도입은 일부 업종 영업시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역시 감염에는 위험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남구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신속항원검사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며 민감도에 한계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PCR 검사와 비교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자가진단 키트 생산 회사가 구청을 찾아와 키트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감도가 낮아 거절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키트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검사한다면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폐이

스북에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이는 것이 돋보기로 백 번 본다고 보이겠느냐”며 반복 검사에도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놓는 자치구도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진단키트를 유통업소나 노래방 출입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손님이 15~20분 노래방에서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관해 정

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위한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겠다고 공언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가검사 키트의 도입 방법, 적용 대상 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질병청 등과 협의한 뒤 합의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세월호 참사’ 벌써 7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4.16인주 시민교육원 단원고 4.16지역교실에서 한 유가족이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처분’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 대법 “신원확인 의무 소홀”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중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13일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의 사회봉사카드 처리에 대한 결재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엔 사회봉사 신고이행자가 신고의무자와 동일인인지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조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 포함됐다.

당시 B 씨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인

〈책임 묻지 않되 인사불이익 따르는 경고〉

적사항 대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회봉사의무가 없는 C 씨를 그와 동명이인이었던 신고의무자로 오인해 총 59시간 30분의 사회봉사를 집행했다.

법무부장관은 2020년 9월 29일 B 씨의 행위에 대해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다.

이에 B 씨는 “오인신고자에게 사회봉사

시간에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이번 경고 처분으로 원격지인 의정부보호관찰소로 문책성 전보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문경고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원고는 자신에게 부여된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검찰은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을 하고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 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고, 조 씨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장수의 과학**

PART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오늘과 내일  
PART 2 의료의 미래, 스마트 병원  
PART 3 인공지능 트레이너를 만나다  
PART 4 잠 못 드는 밤, '슬립테크'가 온다  
PART 5 푸드테크의 유망주, 로봇  
PART 6 반려동물 건강도 AI로 똑똑하게

**신라보가 만난 사람**

멈추지 않는 도전과 진심으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다  
대체 불가 가수 권인하

**느린 여행**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유쾌한 노랫소리, 덕포진교육박물관

전통 정원의 멋 돌연못을 벗 삼아 노닐기만 하였으랴?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귀촌·귀농 A to Z

"새로운 시도는 열정에서 출발한다"  
안경 디자이너 김종필

감성 슌술! 미술관 여기

미술관 풀밭에서 소풍과 낮잠을

습기로문 연금생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www.etoday.co.kr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잡담도 낮잠도 뽀박질도 다 되는 **별난 미술관**

## 양주 가나아트파크

미술 작품 감상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곰곰 뜯어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추상화 앞에선 머리에 쥐가 난다. 이게 관람객이 둔감한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나. 작가 자신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알 바 없이 휘갈긴 작품도 '천지뽀박질'이다. 작품이 난해 하니 미술관에 가봐야 재미가 없다. 미술관들의 따분한 콘셉트에도 식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꽤나 재미있는 미술관이 있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가나아트파크다.

일영리는 산 좋고 물 좋은 전원이다. 예전부터 교외선을 타고 장흥역(현재는 폐역)에 내려 일영 일대의 산수와 찻집을 즐기는 데이트족들이 넘실거리던 곳이다. 유흥주점과 러브호텔로 불야성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장흥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면서 슬쩍 변신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알록달록 치장한 업소들이 난립해 어지럽지만 '양주시립장흥진미술관' 등 문화 공간 다수가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서 좀 색깔 있는 동네로 부상했다. 처음 문화예술의 공기를 주입한 건 토탈미술관이었다. 토탈미술관을 서울 평창동에 있는 가나아트센터가 인수하고 개조해 2006년에 문을 연 게 가나아트파크다.

가나아트파크는 '쉬운 미술관'을 표방한다. 설립자는 가나아트센터의 리더 이호재 씨. 화랑계의 '큰손'이자 진취적인 기획자다. 그는 문턱과 눈높이를 낮추고 재미를 부여해 누구나 쉽게 찾아와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을 궁리하다 가나아트파크를 열었다. 그의 지향과 방향은 선명했다. 어린이들을 주 타깃으로 삼은 거다. 아이들에게 미술과 미술관도 사이버 게임처럼 아주 신날 수 있다는 걸 경험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울러 아이들의 삶에 접할만큼의 작은 크기라도 미술이라는 소우주가 달라붙을 수 있길 바랐을 테고. 그게 결국은 미술 인구의 확대와 저변의 풍토를 다지는 지름길이라 보았을 테고.

이호재 씨의 이와 같은 궁리와 실천은 평범한 게 아니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미술 사업가들이 많지만 아무도 '어린이 중심의 미술관'을 착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기염처럼 토해낸 발상이었으니까. 요즘이야 어린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은 사립미술관이 꽤 있지만 예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미술관으로서 가나아트파크가 지닌 위상이 우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나? 연간 관람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 하니 순항이다. 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한다더라. 이 건 사립미술관의 숙명에 가깝다. 무료입장 제도를 운영하는 국공립미

술관의 관람객 유인력을 당할 재간이 없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사실 비싸지도 않지만) 사립미술관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무려나, 가나아트파크는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뽀박질로 흥겹다. 그러라고 놀이터처럼 꾸며놓은 공간과 시설이 많다. 아이들은 다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온다. 그러기에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많다. 젊거나 늙숙한 부부와 연인들도 전시실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너른 정원에서 짧은 피크닉을 즐긴다. 자유로이 마음보따리를 풀어놓고 쉬기 좋은 미술관이다. 즉 남녀노소가 어울려 체면 차릴 것 없이 일락(逸樂)할 수 있는 곳이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로 들어간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지은 이 건물엔 각각 층고마다 6개의 전시실이 있다. '카페 오웰'과 아트숍도 있다. 1층 전시실 옆방이엔 아이들의 놀이장인 '볼풀 아일랜드'가 있다. 그림 관람을 하는 어른들과 잠시 헤어져 아이들은 이곳에서 맘껏 놀다. 아이와 어른을 동시에 배려했다. 이런 기발하고도 친절한 미술관을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실도 따로 구획해 '교과서 속 그림여행'이라는 이름의 상설전을 펼친다. 피카소,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교과서에 나오는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인기 끄는 백남준 전시실

2층 전시실에서 기획전이 펼쳐진다. 젊은 서양화가 허보리의 'Love My Hero'전이다.(4월 30일까지) 허보리는 만화가 허영만의 딸이다. 전시실로 들어서자 탱크 한 대가 눈에 쏙 들어온다. 허보리의 설치 작품이다. 그녀는 은퇴한 가장들의 양복과 넥타이를 잔뜩 수집해 오브제로 삼았다. 천을 잘라 감거나 돌돌 묶어 케터필러를 비롯한 동체와 포신을 만들었다. 이 괴상한 형질 탱크로 어떤 메타포를 전하는가? 쉽다. 삶이라는 전장에서 먹이를 물어오기 위해 탱크처럼 진격하는 생활의 전사(戰士)를 오마주했다. 포신은 맥없이 바닥에 축 늘어졌다. 탱크처럼 밀어붙여도 어찌할 수 없이 돌아오는 생의 피로와 패배를, 무기력과 발기부전을 보여준다. 정육 소제이스 안에 총알과 수류탄 따위를 만들어 고깃덩어리처럼 진열한 작품 '무장가장'(武裝家長)도 노골적이긴 마찬가지다.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서 작가는 '애'(哀)를 깎아냈다. 삶이 기쁘고 아름답다고? 잉? 그럴 리가! 허보리는 그리 따진다. 혹은 가혹한 삶을 위무한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들을 모은 전시실도 있다.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이란다. 새와 나무, 꽃을 그린 크레파스화들에서 드러나는 백남준은 어린이다. 세 살짜리 천진이 끼적인 낙서처럼 일렁하나 생기롭다. 백남준의 나이 67세에 이 유



2006년 문 연 첫 어린이 중심 미술관 부모는 전시실... 아이들은 볼풀장에 백남준 전시실·피카소 작품도 여럿 넓은 정원에 유명 작가 조각품 가득 풀밭에선 도시락 먹으며 소풍 즐겨



치한 그림들이 나왔다. 도통하면 애로 돌아간다. 달통하면 쉬워진다. 그에겐 닫힌 게 없어 막힐 것도 없었다. 관조의 눈으로 세사를 넓게 읽었다. 자전거를 탄 모니터들로 이루어진 작품을 보라. 골치 아플 거 없이 쉽고 재미있다. 거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나. 백남준은 남들이 안 하거나 못 하는 걸 찾아 해치우는 재주를 창작의 견인차로 삼았을 뿐이다. 백남준이 괴로워한 유일한 문제는 어쩌면 경제였다. 당신은 왜 TV 모니터로 작품을 일삼는가, 이런 질문에 돌아온 답이 이랬다. "돈이 있어야 예술도 되거든. 집에서 보내주는 돈도 끊겼고, 뭘 해야 돈이 되나 궁리를 하다 하다 TV에 착안한 거라고."

본동 외에도 가나아트파크엔 다수의 건축물이 있다. 동쪽 끝자락에 있는 아틀리에 두 개는 모델을 사들여 개조한 건물로 많은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한다. 루브르박물관과 대영박물관 내부 설계를 맡았던 장 미셸 빌모트가 개조 설계를 했다. 도드라지기로는 미술관 중심부에 나란히 선 박스형 건물 세 채. 각기 통째로 파랑과 노랑, 빨강을 입어 매우 강렬하다. 이 미술관은 피카소 작품 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반기워라, 피카소! 파란색 건물에선 피카소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피카소의 일상을 담은 사진도 여러 점 내걸려 흥미롭다. 담배를 물고 신궁 웃고 있으나 뭘가 길들지 않은 포악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표정의 피카소. 살기등등한 송골매의 눈으로 작업을 하는 피카소. 그는 도발적인 화풍으로 타성에 갇히기를 거부했다. 피카소의 작품은 이제 고전이 됐지만, 치열했던 자유의지는 시대를 관통하는 패션으로 남아 세상의 모든 '우물 안 개구리'들을 일깨운다.

노랑 건물엔 섬유작가 토시코 맥아담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그물놀이터 '에어 포켓'(Air Pocket)이 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초대형 뜨개질 작품이다. 이 기이한 구조물엔 구멍이 송송 뚫려 아이들이 기어 들어가 놀도록 했다. 거미줄에 매달려 곡예를 하는 거미처럼. 미지의 차원으로 넘어간 듯. 아이들은 신비감으로 도취될 수밖에 없겠다.

미술관의 너른 정원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혼전만전하다. 류인, 문신, 강대철, 최종태, 양투안 부르텔, 조지 시걸, 세자르 발다치니 등의 작품들이 경연을 펼친다. 조각보다 보기에 좋은 풍경은 풀밭에 앉아 소풍의 한때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정원을 희희낙락 뛰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이다. 이 미술관은 풀밭 위의 도시락 식사도, 야유회도, 낮잠 때리기도 허용한다. 분노도 많고 긴장도 많아 남몰래 아픈 그대여, 여기서 쉬어가라! 미술관은 그리 권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확 열린 미술관, 본 적 있나?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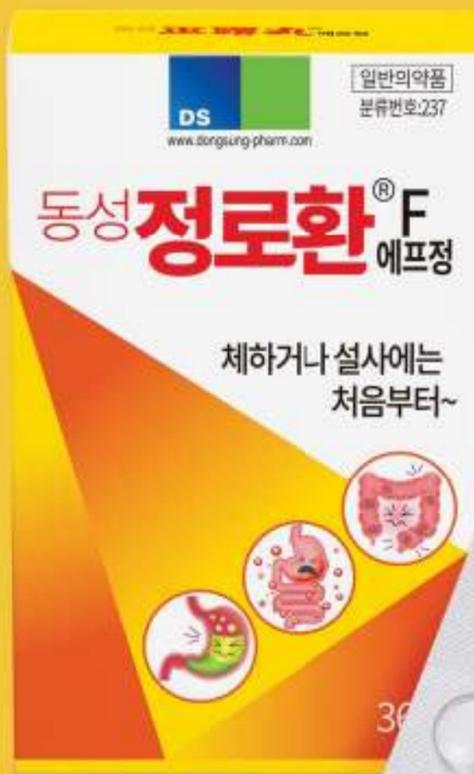


체함  
배함  
설사



#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 “올해 상권 전망요? 업종·업태와 공합 맞아야죠”

주시태 나이스 상권분석서비스 팀장

규모보다는 적합도...마케팅 안하는 점포 빠르게 퇴출될 것  
유동인구로 상권 결정 못해, 아이템과 수요 맞아떨어져야

“올해 상권 전망이요? 구성된 업종과 업태가 상권과 공합이 맞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도태될 겁니다.”

빅데이터로 10년간 상권분석을 연구한 주시태 나이스 상권분석서비스 팀장의 입에서 ‘공합’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 팀장은 “다양한 상권 데이터를 검토할수록 상권의 규모보다는 적합도가 중요하다”면서 “아직도 규모가 크면 좋은 상권인 줄 알고 창업 준비하거나, 그 상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 마케팅 활동도 안 하는 점포는 아주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팀장은 상권을 분석하는 데 능숙하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 본부에서부터 소상공인의 점포 창업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형상업시설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수립, 축제 기간의 영향효과 분석 같은 공공기관 업무도 수행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협 등 금융기관 상권분석시스템도 그의 작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상권분석의 목적이 대부분 창업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하기 위해 주변 동종업종의 매출이나 배후 잠재고객의 규모를 파악해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창업 수요가 줄고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도 떨어지다 보니 창업 목적보다는 마케팅 목적으로 상권분석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죠.”

이처럼 상권분석의 목표가 ‘점포 창업’에서 ‘마케팅 전략수립’ 용도로 바뀌게 되면서 상권분석을 활용한 성공 사례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매출액을 잘 맞추면 성공 모델로 꼽혔지만 이제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좋은 모델이 된다.

주 팀장은 “이제는 예상 월매출액이 15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이대로 끝이 아니다. 1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기



빅데이터로 10년간 상권분석을 연구한 주시태 나이스 상권분석서비스 팀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준비한 아이템이 지역상권의 수요와 맞아떨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에 맞춰 서비스와 메뉴를 개발하고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보면서 적정 가격대를 찾고 매장을 노출하는 홍보 방법을 고민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상권분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상권이 어려운 시대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 팀장은 “상권분석 전문가 김영

갑 교수가 ‘예전에는 좋은 상권(돈을 잘 벌 수 있는 상권)과 나쁜 상권(돈을 못 버는 상권)이 있었고, 좋은 상권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큰 상권을 뜻했다면 이제는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지역상권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면 그게 좋은 상권이 된다’고 했다”면서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합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어디서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 포상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 ‘철탑훈장’

조상욱(사진) 행복모아 대표이사 등 30명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포상 최고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표준산업장인 행복모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그 결과 행복모아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오세훈 서울시장 첫 비서실장에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 내정

서울시는 비서실장에 정상훈(사진) 거점성장추진단장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서울시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조직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정 내정자는 2008~2009년 오 시장의 수행비서관을 한 경험이 있다.

서울시는 비서실장 인사를 시작으로 16일께 행정1, 2부시장과 정부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순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평 기자 pepe@

정용진 부회장 ‘플로깅 챌린지’  
신세계 ‘ESG 경영’ 실천 동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플로깅 실천 사진.

야구단 인수로 주목받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정용진 부회장은 ‘쾌관 플로깅 챌린지’에 동참하며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Pick up)와 조깅(Jogging)을 합친 단어로, 주변을 산책하거나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이다.

정 부회장은 14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이마트 성수점과 주변에서 플로깅을 실천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정 부회장은 직접 쓰레기를 주워담는 사진과 함께 ‘멸종 위기 동물 ‘해달’을 모티브로 만든 이마트 친환경 캠페인 캐릭터 투모 장바구니를 들고, 재활용 실천으로 모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집계를 사용해 더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요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모으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 부회장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목을 받아 쾌관 플로깅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은 다음 쾌관 플로깅 챌린지 주자로 홍정욱 율가나 회장과 ‘올해 145번째 경기부터 SSG렌더스필드에 오실 모든 분들’을 지목하며 야구단 인수 후 목표를 명확히 했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경기수가 144경기인 것을 감안할 때 145번째 경기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의미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공정위, 최근 10년간 최우수 심결사례  
박정현 사무관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최근 10년간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중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최우수 심결사례로 뽑혔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 사례 7건을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 평가로 이들 7개 사건 중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사진) 사무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규모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과 통신 기술 등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 조사 경험을 공유해 공정위 조사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수상했다.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국세청 홍보대사로 ‘모범납세자 표창’ 박민영·조정석 위촉

배우 박민영과 조정석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5일 국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민영과 조정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자

기계발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두 분의 활동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배우 조정석(왼쪽)과 박민영(오른쪽)이 15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김대지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2조 폰지사기’ 메이도프, 교도소서 최후

고수의 미끼 다단계 사기...150년형 중 10분의 1도 못 채워

미국 월가를 발각 뒤집어놓은 희대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설계자였던 버나드 메이도프(사진)가 교도소 병원에서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이도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에 소재한 연방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형량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다. 1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메이도프는 지난해 2월 말기 신장병으로 18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조기 석방을 요

청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938년 뉴욕시 퀸스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도프는 22세의 나이에 미국 월가에 자신의 이름을 따 ‘버나드메이도프투자증권’을 설립하고 투자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 12월까지 세계 136개국에서 3만7000여 명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기극을 벌인 인물이었다.



희대의 사기극은 1990년대 초 극심한 불황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돼서야 끝이 났다.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원금 상환을 동시에 요구했고 이들에게 줄 돈이 없었던 메이도프는 자신의 투자자문업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았다.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약 72조5530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메이도프는 2008년 12월 체포됐고, 법원은 이듬해 3월 징역 150년 형을 선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부음

▲정팔만 씨 별세, 장동순 씨 남편상, 정종태(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씨 부친상 = 1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31-787-1501

▲김정희 씨 별세, 서범석(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후석(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교수)·석자(의류업)·미자 씨 모친상, 이은영 씨 시모상, 태병춘·고광욱 씨 장모상 = 1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3010-2000

▲장월면 씨 별세, 신정훈(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장)·영자·혜옥·춘옥 씨 모친상 = 15일, 부산 영락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40분, 051-790-50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
는지를 보고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
을 것이다. 막나가는 북한을 관리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야 한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입법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맹국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으면 한다.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
상반되는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난
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
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
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
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
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
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
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
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은 법 개정안 발의 때부터 미
국 내 보수 세력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
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민간단체
들은 법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입법을
마친 사안에 대해 미 공화당 중심의 의회
산하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
스러운 일이다. 대북전단 규제는 북한 인
권 경시 문제도 아니고 북한인권단체의 활
동을 위축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전단 살
포 행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접경지

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는 취지이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미국 의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 법을 개
정은 그간 여러 우려를 감안하여 타국에서
의 북한 인권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까지 마련하면서 통과됐다. 위원
회의 성격 여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주권적 사항과 국회
의 의결을 거친 법안의 내용이 미 의회 위
원회 청문회의 대상이 된 것은 매우 납득
하기 어렵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이런 시도들과는 반대로 브래드 셔먼과
같은 지한파 의원들은 지난해 종전선언 결
의안에 동참하고 올해도 포괄적 한반도 평
화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내는 등 한반도 평
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
된다. 그는 10일 한인단체와의 포럼에서
그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과 제재 일변도의 대
북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북
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 핵무기

생산만을 확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는 북미 간 평화조약이나 평화
선언이 필요하며 인도적 협력을 위해 평양
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북한을 강하
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북한과
의 관계 개선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의결으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에 의회정치가 있다는 메커니즘을 모
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돌아켜보면 늘 미국 내
정치공방과 강경한 대북 입장이 대북정책
을 180도로 바꾸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강경한 대
북정책이나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보다는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 그나마 북한의 핵
개발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
켜 왔음에도 미국 내 강경파들은 늘 북한
붕괴론, 북한 정권교체론 등을 흘리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시위, 경제적 제재, 인

권 압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바이
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재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야
당이 주도하는 이러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새 정부의 새로
운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밖에
는 볼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대북강경책은 해법이 아
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나
오노지를 보고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을 무시하고 압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북한의 핵개
발 저지와 관계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굴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나가는 북
한을 관리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어
떤 정책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
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한국
의 입법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맹국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으면 한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 칼럼니스트

4월 과학의 달, 패러데이를 떠올리는 까닭

리고 이 후 과학에 대한 대중 강연자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한 물리학자를 소환
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이클 패러데이
(1791~1867)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
자로, 전자기장의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발
전기의 원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해
'현대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동
시에 과학의 대중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
물이다. 물리학에 큰 족적을 남긴 학자들대
부분이 '학창 시절부터 수학이나 물리에 남
달리 우수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
과는 달리 패러데이는 어려운 가정환경 탓
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받았다. 열세 살의
나이에 제분소 수습생으로 일을 시작한 패
러데이는 쉬는 시간이면 제분한 책들을 읽
으며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다.

그리고 24세가 되던 해인 1815년 5월
영국왕립연구소(The Royal Institution)
실험실의 장비와 광물학 물품의 관리자
겸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의 조수로 고용되
면서 과학적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데이비는 웃음가스(알려진 일산화
이질소(N2O))의 마취 효과를 발견한 화학
자다. 한 실험사고로 눈을 다친 데이비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실험을 기록해 줄
사람으로 패러데이를 발탁하고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사제의 관계를 맺게 된다.

데이비와의 만남과 더불어 패러데이의
인생을 변화시킨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바
로 왕립연구소다. 1799년 철학 강의와 실
험 시연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대중에게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왕립연구소
는 당시 가장 중심적인 연구기관이었으면
동시에 과학과 대중이 가장 활발하게 만나
던 곳이었다. 40여 년간 왕립연구소에서
일했던 패러데이 역시 여러차례의 강연을
했는데, 특히 금요일마다 실험실로 연구소
회원들을 초청해서 강연하는 행사는 강의
실을 대강당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큰 인
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금요
일 저녁 토론회(Friday Evening Dis-
courses)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제안한 어린이를 위
한 크리스마스 강연회(RI Christmas
Lectures)에도 스무 번이나 연사로서 참
여했다. 이 중 1860년 한 자루의 양초를
통해 화학의 토대를 이루는 물질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설명한 강연이 가장 유명하
다.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강연은 'The

Chemical History of a Candle'이란 이
름의 책으로 묶여 출간됐고, 우리나라에서
도 '양초 한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 (박
택규 옮김, 1998)란 이름으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이 강연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과학 사실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가 얼마
나 섬세하고 예리한 관찰 능력을 갖고있는
지를 엿볼 수 있고, 또한 자연현상을 관찰
하고 그것이 가지는 아름답고 심오한 의미
를 해석하고 밝히려는 과학자로서의 열의
도 느끼게 된다. 매우 겸손하고 소박했던
천재 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무리짓는다.

"저는 이 강연의 마지막 말로서 여러분
의 생명이 양초처럼 오래 계속되어 이웃을
위한 밝은 빛으로 빛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양초의 불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나
타내며, 여러분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의
무를 수행하는 데 전 생명을 바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
시지에 새삼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수 많은 과학 강연들이 담아야 할 메시
지는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렉시 드 토크빌 명언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
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평등 속의 자유'의 정치
체제로 자유민주정치를 탐구한 '미국의 민
주주의'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을 남겼
다. 그는 지방분권형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다수자의 전제, 대세 순응적·확립적 사고
와 행동'을, 행정집권형 프랑스엔 '행정의
전제(專制), 공공정신의 고갈, 정치적 무
관심'을 우려했다. 그는 오늘 눈을 감았
다. 1805~1859.

☆ 고사성어 / 요고순목(堯鼓舜木)
'요임금의 북과 순임금의 나무'라는 말.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비유한다. 원전은 화남자(淮南子) 주술훈
(主術訓)편. "요임금은 감히 간언하는 북
을 설치하였고, 순임금은 그릇된 정치를
꾸짖는 나무를 세웠다[堯置敢諫之鼓 舜立
誹謗之木]." 요임금은 궁궐 문 앞에 북을
매달아 놓고, 순임금도 궁궐 앞에 나무를
세워 누구나 언제든 간언할 수 있게 했다.

☆ 시사상식 / 사위효과
백화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중
의 하나. 식품매장은 지하에, 전문 식당가
는 맨 꼭대기 층에 배치한 이유다. 소비자
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을 위층에 배치해
집객 효과가 아래층까지 영향을 미쳐 백화
점 전체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이와 반대로 아래층에서 위층으
로 올라오도록 유인하는 전략은 분수효과
(Fountain effect)라고 한다.

☆ 신조어 / 있어버리하다
'광고주가 광고를 마음에 들어할 것 같
은 말이다'란 뜻의 광고업계 은어이다.

☆ 유머 / 닭살 부부의 반전
결혼한 지 십 년이 넘는 닭살 부부가 부
부동반 모임에서 남편이 아내를 '달링'이
라 불렀다. 이를 본 친구가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비결이 뭔가?"라고 궁금해하자
그의 대답. "사실은 결혼한 지 삼 년째 되
는 해부터는 도무지 아내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질 않아서."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공
장을 거의 지어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요."

지난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다는 소식에 대해 한 취재원이 한 말이다.
흥미롭다고 느꼈던 건 취재원이 이러한 반
응을 보이기까지 대화의 흐름이다. 불과 1
시간 전 그는 "인텔 파운드리 진출이 미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기자
의 질문에 "세계적 기업이 정부 압박 때문
에 사업 향방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분위기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조금 후 기자에게 전화를 해 "완

기자수첩



노우리 산업부/we1228@

공장은 못 지어주더라도

전히 잘못 짚었다"고 고백(?)했다. 미국 정
부가 반도체 패권 쟁탈전에 들고 있는 노
력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뜻으로 읽혔다.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자유
경쟁' 원칙이 반도체 업계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어 올

린 풍경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기술 굴
기'가 있다.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안보 문
제로 인식한 결과. '반도체 속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중 패권 다툼에 가장 취약한 산
업 구조다. 양국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에 비슷한 비중으로 몸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흘러가는 산업 형세에
전전공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산업이 정치 논리에 휘
둘리느라 선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아
쉬움을 표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했던
2019년부터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일관적인 정책 수립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엔 정부의 긴급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
자, SK하이닉스의 주요 경영진을 불러모
았다. '공장을 거의 지어주는 수준'까진 못
된다 해도 업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실리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Non-Editorial, Finance, etc.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조정장 맞은 증시

최준영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

# “장세가 만든 호수익, 실력으로 오판 안돼”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기존의 펀드상품으로는 충족할 수 없었기에 직접투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준영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은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난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 다며 이렇게 말했다.

### 2.3조 규모 패시브·퀀트 운용 지휘

최 본부장은 최근 직접투자가 늘고 있어 더 참신한 상품을 개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면 투자자들의 위탁자산을 운용해 수수료를 수수익으로 삼는 자산운용업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수익의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공모펀드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2조3000억 원(2월 말 기준)의 패시브·퀀트 운용을 지휘하고 있다. 운용 스타일은 철저히 계량적 분석에 기반하며, 인덱스펀드 운용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을 활용한 선·현물 차익거래 경험을 펀드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장외파생팀과 미래에셋증권 상품운용팀, 멀티에셋자산운용 패시브운용팀을 거쳐 2018년부터 지금의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 ‘전자’ 비중 조절 삼성그룹주 펀드

최 본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삼성그룹주를 위주로 투자하는 ‘삼성그룹코어알파 증권투자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고, 실제로 삼성전자를 활용한 몇몇 펀드들이 시장에 출시됐다”며 “이런 투자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삼성전자를 활용한 펀드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시된 펀드들이 대부분 고정비율로 삼성전자를 편입해 보유하지만, 이런 펀드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삼성전자 비중 조절 모델을 가미했다”며 “삼성전자 이외의 삼성그룹주들도 각 업종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목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삼성 주요 계열사까지 활용한 삼성그룹주 펀드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주를 위주로 운용되지만 완전히 자동화된 매매는 아니다. 최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판단해 그에 따른 목표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가져간다”며 “이를 통해 상승 국면에서는 초과 성과를 창출하고, 하락 국면에서는 방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량적·정성적 리서치를 통해 종목 편입을 한다는 점도 완전히 패시브로 운용되는 펀드와 차이점이다. 즉 지배구조 수혜가 예상되거나 고배당, 고성장, 저평가 종목 등을 감안해 삼성그룹주 내에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3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폭락 이후 전례 없는 상승을 이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의 폭발적 증가로 박스피(코스피와 박스권의 합성어)의 오명을 벗어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상승 피로감으로 조정장에 돌입했다.



최준영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난 똑똑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대신자산운용

눈높이 높아진 개인투자자 펀드로 만족 못해 직접 투자에 걸맞은 상품 개발해야

코로나 이후 가파른 상승세 피로감 누적으로 조정장 돌입

업종별 분석, 충분히 수익 가능

절대적인 필승 투자법? 없죠!

손실 최소화 방법 고민하고

감내 가능한 범위서 투자해야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때에도 삼성그룹주 위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묻자 최 본부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숨 가쁘게 올랐던 시장이 한숨을 돌리고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연초 이후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및 슈퍼 사이클 도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업종별로 순환 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 전망에도 최근 가격조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삼성그룹주 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목들이 업종별로 잘 분산돼 있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금융공학 기미한 퀀트 운용 매력적

퀀트운용이란 수치화할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예를 들면 수익률)을 가지고 종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에 따라 매수할 종목군과 매도할 종목군을 선택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지난 한 달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투자유니버스 종목들을 최근 한 달 수익률 기준으로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후 상위 그룹을 매수하고, 하위 그룹을 매도하는 식이다.

최 본부장이 퀀트운용의 전문가가 된 배경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주요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꾸준히 프로그래밍 실력을 쌓아왔다”며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치고는 실력이 나쁘지 않아 한때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금융회사 자기계정거래) 부서에서 자동매매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공을 경제학으로 선택했는데 학부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중 우연히 금융공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 본부장은 “경제학 전공 베이스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받쳐준다면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퀀트운용 쪽으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무리한 투자, 위기관리 실패 이어져

최근 많은 이들이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철학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자, “투자 필승법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최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퀀트 전략을 개발할 때도 시뮬레이션상 승률이 60%만 넘어가도 우수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큼 절대적인 필승 전략은 없다”며 “다만 전략을 세울 때나 실제로 전략을 운용에 적용할 때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내에서 투자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전략별 최대 손실한도를 정해 놓고, 손실한도에 다르면 포지션을 청산해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투자의 마음가짐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자세다. 최 본부장은 “최근에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해와 올해에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한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도 수익을 많이 거두었을 확률이 높다”며 “물론 초보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실력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수익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 수익을 거둔 것을 자신의 투자실력이 뛰어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오판하게 된다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지고, 위험관리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항상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사설

## 쌍용차 다시 법정관리,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쌍용자동차가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벗어난 지 10년 만에 또 법원 손에 운명이 넘어가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이 같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오는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M&A)과 채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자산과 재무상황 등을 실시해 쌍용차의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계속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는다. 금융권에서는 법정관리에도 담감되지 않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채권은 밀린 임직원 급여, 부품협력업체 납품대금 등이다.

법원은 우선 매각을 진행하는 쪽이다. 잠재적 인수희망자는 있다. 그동안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공익채권의 부담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유력하고,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등 몇 곳도 관심을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자금력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다.

쌍용차의 고강도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리하고와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이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과거 악몽의 재연이 우려된다. 쌍용차는 2009년에도 당시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00여 명의 감원에 나섰고, 이는 ‘옥쇄파업’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을 가져왔다. 쌍용차 노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회생계획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대규모 인력감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물론 쌍용차의 회생이 바람직하다. 4800여 명의 종업원, 2만여 명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려 있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의 부담이 크고 법원도 파산 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고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쌍용차는 2011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고 2016년 잠시 흑자 전환한 이후 연속 적자에 빠졌다. 누적 적자 1조 원에 자본잠식 상태다. 매각이 진행돼도 산업은행 등의 공적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 전제 또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다. 마힌드라가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지원 요구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정치논리가 개입해 세금으로 연명시키고, 다시 위기에 빠져 국민 피해만 키우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 쌍용차를 살려내도 미래가 의문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고,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공식화하고 있다. 쌍용차처럼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 ‘역사’에 대한 예의

워낙 시청률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때 거명조차도 불온시도였던 독립투사 김원봉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되었다. 그것도 지상파 MBC에서 말이다. 김원봉은 항일투쟁을 했지만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 정권의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김구보다 현상금이 높을 정도로 약명(?) 높은 인물이었지만 역사의 전면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드라마 기획 당시에는 김원봉의 역할을 유지태가 맡으면서 과연 파란만장한 전설의 풍운아를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낼까 하는 기대와 호기심이 컸었다.

‘이몽’ <왼쪽 사진>이라는 타이틀로 두경을 열었지만 결과는 대참패. 실제 인물의 깊이와 무게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은 차치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김원봉의 주 활동공간은 중국과 만주였는데, 드라마에선 조선의 거리를 거침없이 활보하는 협객으로 분하여 중로 한복판에서 격투와 총격전을 수시로 벌이는 인물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김원봉을 가져왔을 뿐 역사적 기본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연출된 셈이다. 창작과 상상력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산적들과 싸우게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적 소재를 드라마나 영화화함에 있어 어디까지 창작이 허용되는가 하는 건 사실 해묵은 논쟁이다. 필자 역시 영화를 소재로 역사강의 하는 일을 꽤 오래 했었고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쓴 마당에 이번 SBS의 ‘조선구마사’ 논란은 여러 생각을 들게 한다.

사실 역사왜곡이 어디 이 작품뿐이다. 6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손에진 주연의 ‘덕혜옹주’ <오른쪽>는 영화 한 편을 온전히

판타지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던가? 고종의 고명딸인 덕혜옹주는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하고 그녀의 오빠들(의친왕, 영친왕)은 망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 수차례 궁궐 탈출을 시도하였고,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내용에 이르면 어린 학생들에게 이 허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역사는 훨씬 임팩트 있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역사의 창작은 허용될 수 있을까? 관련 논문을 다 뒤져봤지만 정답은 없었다. 그래서 역사영화 전문가로서 최대한 근사치의 답을 도출해 봤다. 대중의 역사적 상식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 SAMSUNG

## 그림데 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시간이 지나도  
공간이 변해도

### 언제나. 어디서나. 나답게



신근생활의 그림데 시



신혼생활의 그림데 시



아이와 함께 그림데 시

# BESPOKE 그림데 시

국내 최초 한국표준협회(KSA)의 SA+ 인증 취득

\* 그림데 세탁기 (SA 2020.12.29 세탁기) | 동력 최초 인증 (인증번호: AMS-0008) \* 그림데 건조기 (SA 2020.12.29 건조기) | 동력 최초 인증 (인증번호: AMS-0009)

가전을 나답게.